

## 식민지 학술단체 ‘해외영토학술원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100년의 역사

이재원

### I. 머리말

식민지학술원(Académie des sciences coloniales)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해외영토학술원(Académie des sciences d’outre-mer)은 1922년에 창설된 식민지 학술단체이다. 이 기관은 고고학, 농업, 응용 식물학, 지리학, 역사 등 모든 사회적, 기술적 차원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를 연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국주의 시대에 탄생한 해외영토학술원은 식민주의 경향을 지닌 식민지 압력단체 혹은 식민지 선전단체인 식민지 정당(parti colonial)<sup>1)</sup>으로 자연스럽게 규정할 수 있다. 프랑스 제국의 종말과 함께 사라질 수 있었던 식민지학술원은 탈식민화 운동 속에 1957년 6월 17일 해외영토학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세상의

1) 1890년에 설립된 프랑스 아프리카위원회(Comité de l’Afrique française)에서 유래한 식민지 정당(parti colonial)은 정치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 경향을 지닌 다양한 여론 단체(groupe d’ opinion)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식민지 정당 관련해선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Christopher Andrew et Alexander-Sydney Kanya-Forstner, “The French “Colonial Party”: Its Composition, Aims and Influence, 1885-1914”, *The Historical Journal*, 14-1(1971), pp. 99-128; Henry Brunschwig, “Le Parti colonial français”, in *Revue française d’histoire d’outre-mer*, T. 46, No. 162(premier trimestre 1959), pp. 49-83; Julie d’Andurain, *Colonialisme ou impérialisme? Le Parti colonial en pensée et en action* (Paris: Hémisphères Éditions, coll. “Zellige”, 2017); Marc Lagana, *Le parti colonial français: éléments d’histoire* (Sillery: Presses de l’université du Québec, 1990).

변화에 대응해나갔다.

1922년 2월, 식민지학술원의 초대 원장이자 종신 사무총장이 될 폴 부르다리(Paul Bourdari)는 식민지 행정관이자 민속학자인 모리스 들라포스(Maurice Delafosse)와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 역사학 교수 알프레도 마르티노(Alfred Martineau)와 함께 상원의원이자 전 식민지부 장관,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이 될 알베르 르브룅(Albert Lebrun)에게 “프랑스 식민 제국 관련 문제들을 지도해나가기 위해 공화국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의 필요성”<sup>2)</sup>을 역설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르브룅의 동의를 얻은 후 학술원 설립을 위한 준비 회의와 7월 8일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 본부(101, boulevard Raspail)에서 “식민지학술원 창립; 정관(定款) 초안과 내부 규정의 심의와 토론”이라는 주제로 창립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이날 발표된 정관 제1조를 통해 식민지학술원은 “식민지에 관한 관심 있는 연구를 자극, 격려, 개발, 조정하고 식민지와 보호국의 지적 생활을 위한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sup>3)</sup>라고 선언했다. 창립 개회식은 그로부터 1년 후, 1923년 5월 18일 소르본 대학에서 식민지부 장관 알베르 사로(Albert Sarraut)의 주제로 알베르 르브룅과 폴 부르다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립회원인 모리스 들라포스<sup>4)</sup>는 학술원의 네 가지 좌우명(devise)인 “알기, 이해하기, 존중하기, 사랑하기(Savoir, comprendre, respecter, aimer)”를 선포했다. 이를 통해 “프랑스의 해외영토는 언제나 자신 너머로 향하는 문을 여는 타자성의 경험임을, 탈중심화는 습관과 변화에 대한 게으름으로 인해 진부해진 아이디어에 대한 해독제임을, 타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 독특한 사고방식과 존재 방식을 존중해야 함을, ‘문명의 충돌’보다 ‘문명 간의 대화’를 학술원은 선호함”<sup>5)</sup>을 천명했다.

2) Pierre Géný, “Les 90 ans de l’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en 2012”, Émission sur Canal Académie, juin 2012.

3) <https://odyssee.univ-amu.fr/exhibits/show/lettres-sciences-humaines/item/476#?c=0&m=0&s=0&cv=0> (검색일: 2024년 1월 10일).

4)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프랑스 식민 행정가이자 민족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된 모리스 들라포스 관련해선, William B. Cohen, “Review of : *Maurice Delafosse, le Berrichon Conquis par l’Afrique* by Louise Delafosse, Paris: Société Française d’Histoire d’Outre-Mer”,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n Historical Studies*. 11-2(1978), pp. 302-305를 참조하라.

5) Roland Pourtier, “Allocution”, Cérémonie du Centenaire de l’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26 mai 2023.

이 기관은 국가 원수, 정치인, 고위 관료, 학자, 군인, 예술가, 언론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적의 275명의 지식인 네트워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해외영토학술원은 파리에서 영향력 있는 가장 신중하고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지식인 모임 중 하나이다. 외교관, 연구원, 언론인, 정치인은 이용 가능한 몇 안 되는 좌석 중 하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식민지 문제 즉, 해외영토 문제, 다시 말해 해외에 존재하는 프랑스 영토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역사적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는 프랑스 국경 너머의 모든 국가를 지칭하는 ‘해외영토(outre-mer)’<sup>6)</sup>와 관련된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이 지식인 학회는 여전히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이고 프랑스에서도 해외영토학술원을 다룬 연구는 군 장성 출신으로 해외영토학술원 제1분과 정회원인 장피에르 포르(Jean-Pierre Faure)가 ‘정리한’ 「해외영토학술원 창립회원과 제1차 세계대전」<sup>7)</sup>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학술원의 역사와 활동, 식민지 문제의 인식과 확산에 이바지한 학술원의 역할과 프랑스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소개하고 분석한 논문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해외영토학술원이 기획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sup>8)</sup>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

<https://www.youtube.com/watch?v=MzNupO8fBEQ> (검색일: 2024년 2월 18일).

- 6) 프랑스 혹은 ‘프랑스 본국(métropole)’ 과 관련하여 ‘바다 너머’ 에 있는 프랑스 영토를 지칭하는 해외영토는 프랑스의 식민지, 이전 식민지 또는 속령(possession)을 의미한다. 1934년에 ‘식민지(colonie)’ 라는 용어는 ‘해외영토(outre-mer)’ 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이때 식민지 학교(École coloniale)는 프랑스 해외영토 국립학교(École nationale de la France d’Outre-mer)가 되었으며, 이후 식민지부(Ministère des colonies)는 차례로 프랑스 해외영토부(Ministère de la France d’ Outre-mer 1946년 1월), 사하라 및 해외영토도 및 지역부(Ministère du Sahara et des Départements et Territoires d’Outre-mer, 1959), 해외영토도 및 지역부(Ministère du des Départements et Territoires d’Outre-mer, 1962), (내무부 산하) 해외영토부(Ministère de l’ Outre-mer)와 해외영토 국무사무국(secrétariat d’ Etat à l’ Outre-mer)을 거쳐 2012년 5월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당선 이후 해외영토부(Ministère des Outre-mer)가 되었다. Jean Nemo, “outre-mer”, *dictionnaire-academie.fr*, 1919.
- 7) Jean-Pierre Faure, “Les membres fondateurs de l’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et la Grande Guerre”, *Revue Défense Nationale*, 816(2019), pp. 61-66.
- 8) “Recueil des actes du colloque < La Grande Guerre et l’ Outre-Mer

반면에 본 논문은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학술단체로 시작한 해외영토학술원이 공식적인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또한 창립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외영토 문제를 언급하는 주요 학술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는 이유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학술원의 역사와 인물, 다양한 활동과 학술대회를 통해 드러난 연구와 관심 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과거 식민주의 유산이 어떻게 계승되고 변용되며, 극복되었는지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 장에서는 해외영토학술원을 ‘만든 사람들’ 과 식민지 탐험과 행정에 기여한 인물,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분석을 통한 학술원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프랑스 해외영토에 대한 주요 정보의 원천으로서, 식민지 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해외영토 관련 학술원의 입장과 주장을 드러내는 해외영토학술원이 발간하는 잡지와 저서 등의 간행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V 장은 엑상프로방스의 해외영토국립문서고와 함께 옛 식민지와 해외영토 관련 자료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는 해외영토학술원의 펠릭스 우푸에부아니 도서관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식민지 문학 컬렉션, 디지털 자료, 각종 문학상을 받은 식민지를 주제로 한 최근 저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V 장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영토학술원이 전쟁과 승리에 대한 해외영토 참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식민지 군대의 전쟁 참여 결과와 유산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 측면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VI 장에서는 프랑스 해외영토 국가들의 ‘지적 가치’ 에 중점을 둔 해외영토학술원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논의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인물, 조직과 활동

식민지 문제, 즉 해외영토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지식인 협회인 식민지학술원의 창설을 주도한 인물은 저널리스트이자 탐험가이며 식민지 문제 전문가인 폴 부르다리였다. 식민지학술원의 초대 원장이자 종신 사무총장이었던 그는 1893년 중앙아프리카 탐험의 출발점이었던 프랑스 아프리카 협

---

français, 1914-2018: un siècle de mémoire »” organisé par l’ ASOM sous la direction de Jeanne-Marie Amat-Roze.

회를 이끌었다. ‘파쇼다 사건’ 당시 이집트 위원회 사무국장(1894-1897)을 지냈으며, 1906년에 『르뷔 앙디젠(*Revue Indigène*)』의 편집위원장이 되었고, 파리에 설립된 무료 고등교육기관인 자유사회과학대학의 아프리카 역사 및 사회학 전공 교수(1908-1920)였고, 모로코 총독이자 프랑스군 총사령관 위베르 리요테(Hubert Lyautey) 장군의 요청으로 튀니지(1910)와 모로코(1916)를 탐험했다. 무슬림 연구소 창설자(1915), 식민지 면화협회 대표(1917-1921), 식민지 상급위원회 회원(1922), 사하라 횡단철도 연구위원회 회원(1929), 세계식민지박람회 상급위원회 회원(1930), 프랑스 흑인아프리카연구소 고등과학위원회 회원(1938) 등을 역임했다.<sup>9)</sup>

그를 포함하여 1922년 창립 회의에 참석한 38명의 인물은 식민지학술원의 창립자로 간주한다. 이들 중에는 세 명의 미래의 공화국 대통령인 가스통 두메르그(Gaston Doumergue, 1924-1931 재임), 폴 두메르(Paul Doumer, 1931-1932) 및 알베르 르브룅(1932-1940)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앞서 언급했던 모리스 들라포스, 알프레드 마르티노와 더불어 지리학자이자 역사학자이며, 그의 저술을 통해 식민지 팽창을 서구 문화의 확장으로만 국한할 것을 요구하고, 알제리인의 생활 조건 개선을 옹호하기도 했던 오귀스탱 베르나르(Augustin Bernard),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피에르 밀(Pierre Mille)<sup>10)</sup>, 식민지 학교(École Coloniale) 학생회 협회 회장을 지낸

9) 그의 이름을 딴 해외영토학술원의 문학상이 존재하며, 1939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로부터 가장 위대한 프랑스 상(prix de la plus grande France)을 받았다. 폴 부르다리의 대표적인 논저(저서, 논문, 보고서, 발표문)는 다음과 같다. *A la Côte du Congo français (notes et impressions)* (conférence faite à la Société africaine de France, décembre 1893) (Paris: Librairie africaine, 1894); *Les problèmes de la politique indigène et économique du Congo français* (Extrait du *Bulletin de la Société normande de géographie*. 2<sup>e</sup> cahier de 1906) (Rouen: Impr. de L. Gy, 1906); *La Grande guerre considérée au point de vue colonial. La Lutte des impérialismes coloniaux* (Publié par la *Revue des questions coloniales et maritimes* et la *Revue indigène*. 1916) (Thouars: Impr. nouvelle, 1916); *Une politique coloniale française* (Paris: Bibliothèque de la “Revue indigène”, 1921); *L’Exploitation du domaine colonial. Un projet de collaboration étrangère* (Thouars, Paris: Impr. nouvelle / Bibliothèque de la “Revue des questions coloniales et maritimes”, 1922).

10) 그의 공적을 기념하여 프랑스 해외영토 언론 조합(Syndicat de la presse française d’Outre-mer)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언론 기자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보도상인 피에르 밀 상(Prix Pierre Mille)을 제정하였다. André Thérèse, “Pierre Mille un prince du journalisme”, *Le Matin*, 15 janvier

문필가이자 아르덴(Ardenne) 지역 정치인인 뤼시앵 위베르(Lucien Hubert)<sup>11)</sup>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식민지 군대(Troupe coloniale)의 감찰관으로 ‘세네갈 보병’을 주 구성원으로 하는 ‘흑인 부대’의 창설에 그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던 샤를 망쟁(Charles Mangin) 장군과 프랑스군 장성이자 식민지 행정관, 모로코 총독(1912-1925), 전쟁부 장관(1916-1917), 세계식민지박람회 조직위원장(1931), ‘프랑스 제국의 건설자’라는 별칭을 받은 프랑스군 총사령관(1921)을 역임한 위베르 리요테 장군도 창립회원에 포함된다.

식민지학술원의 집행부는 의장인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가브리엘 아노토(Gabriel Hanotaux)와 각각 의회, 식민지 군대, 행정부, 탐험가를 대표하는 폴 두메르, 루이 아르시나르(Louis Archinard), 에르네스트 롬(Ernest Roume) 및 오귀스트 파비(Auguste Pavie) 등의 부의장으로 구성되었다. 창립회장의 직함은 알베르 르브룅에게 부여되었다. 1923년 5월 18일 열린 식민지학술원 창립 기념식에서 가브리엘 아노토는 “이 새로운 지적 연구소, 이 아이디어 연구소”가 수행해야 할 식민지 학술단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sup>12)</sup> 창립회원과 집행부 이외에 해외영토학술원의 명성을 높인 저명한 인물 중에는 프랑스 총리와 식민지 문제 관련 장관<sup>13)</sup>, 식민지 총독

---

1941.

- 11) 공화당원이자 급진주의자인 뤼시앵 위베르는 원주민의 상황을 개선하고 학대에 맞서 싸우는 데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식민 제국과 ‘문명화 유럽(Europe civilisatrice)’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 집착한 인물이었다. Jean Jolly (dir.), “Lucien Hubert (homme politique)”, *Dictionnaire des parlementaires français (1889-1940)* (Paris: PUF, 1960).
- 12) <https://www.academieoutremer.fr/histoire/> (검색일: 2024년 1월 10일).
- 13) 해외영토학술원 회원으로 명성을 높인 저명한 인물 중에는 앞서 언급한 미래의 세 명의 공화국 대통령 이외에도, 두 차례(1920-1924, 1932-1933)에 걸쳐 식민지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1911-1914, 1917-1919), 해군부 장관(1930, 1930-31, 1933-34), 그리고 두 차례 총리를 지낸(1933, 1936) 알베르 사로(Albert Sarraut), 그리고 에드가 포르(Edgar Faure. 1952, 1955-56), 르네 플레뱅(René Pleven. 1950-51, 1951-52), 피에르 메스메르(Pierre Messmer. 1972-74), 및 조르주 레그(Georges Leygues, 1920-1921) 등의 여러 총리를 언급할 수 있다. 식민지 문제 관련 장관 출신 으론, 피에르 메스메르(해외부처 및 영토부 장관(1971-72), 장자크 쥐글라스(Jean-Jacques Juglas. 프랑스 해외영토부, 1955), 알제리 총독을 지낸 마르셀 네즐렌(Marcel Naegelen. 1948-51; 법무부 장관, 1946-48), 자크 수스텔(Jacques Soustelle. 식민지부, 1945-46), 장 르투르노(Jean Letourneau. 프랑스 해외영토부, 1949-50; 연합국가 관계 담당, 1950-53) 등을 언급할 수 있

과 식민지 관료<sup>14)</sup>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해외영토 학술원은 회원 중에 프랑스 학술원 (Institut de France)<sup>15)</sup>의 2명의 종신 사무국장인 사학, 고고학, 문헌학 학자들로 구성된 비명·문학 아카데미(Inscriptions et Belles Lettres) 소속의 장 르클랑(Jean Leclant)과 미술 아카데미(Académie des beaux-arts) 소속의 아르노 도트리브(Arnaud d’Hauterives), 프랑스 학술원 회원인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자 라 프랑코포니 장관(Ministre de la Francophonie, 1988-91) 알랭 드코(Alain Decaux)와 전 세네갈 대통령 레오폴드 세다르 상고르(Léopold Sedar Sengor), 비명·

다.

- 14) 식민지 총독 출신의 쥘 브레비에(Jules Brévié.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1930; 프랑스령 서아프리카(AOF: Afrique-Équatoriale française), 1930-36; 인도차이나, 1936-39), 오스발드 뒤랑(Oswald Durand. 세네갈, 1946-47), 조셉 프랑수아 레스트(Joseph-François Reste. 차드(Tchad), 1923-26; 다호메이(Dahomey), 1928-30; 코트디부아르(1931-35);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AEF: Afrique-Occidentale Française), 1936-39)도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 외에도 해외영토 역사 프랑스협회 회장(1954-1960), 카메룬 주재 프랑스 고등관무관(1946-1947), 프랑스 해외영토 국립학교 교장(Directeur de l’ École nationale de la France d’outre-mer, 1937-1946) 등의 직을 역임한 로베르 들라비네트(Robert Delavignette), 인도차이나 주재 프랑스 고등관무관(1948-1950) 레옹 피뇽(Léon Pignon), 마다가스카르 주재 프랑스 고등관무관(1950-1954) 로베르 바르그(Robert Bargues), 해외영토 개발을 위한 유럽 집행위원회 의원(1958-62)을 지낸 로베르 르메니앙(Robert Lemaignan)도 학술원에 이름을 올린 식민지 관료 출신들이다.
- 15) 1795년에 창설된 프랑스 학술원(Institut de France)은 프랑스의 과학, 문학, 예술 엘리트들 한데 모아, “학문과 예술을 완벽하게 다듬고, 독립적인 사고를 키우며, 정부 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학술원은 ‘지성계의 의회’라는 별칭을 지닌다. “영속하다(Perpétuer), 지지하다(soutenir), 계몽하다(éclairer)”를 모토로 프랑스 대통령의 보호를 받는 프랑스 학술원은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 회원수 총 40명), 금석문·문예 아카데미(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55명), 과학 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 263명), 미술 아카데미(Académie des beaux-arts, 63명), 정신과학·정치학 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 등 총 5개의 아카데미로 구성된다. 유증과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프랑스 학술원은 상, 장학금,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연구와 창작을 후원하는 수많은 재단들의 거처이자, 19세기 후반부터 상속받은 자산과 수집품과 같은 중요한 유산을 보호하는 이들의 안식처이다. 프랑스 학술원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institut-de-france.fr](http://www.institut-de-france.fr)이다.

문학 아카데미의 장 파비에(Jean Favier),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의 이브 코팽스(Yves Coppens), 국립자연사박물관장인 장 도르스트(Jean Dorst), “20세기 사하라 사막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프랑스 자연주의 생물학자 테오도르 모노(Théodore Monod), 정신·과학·정치 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 소속으로 해외영토 부처 및 영토 담당 정부차관(1972-1973)을 지낸 자비에 드니오(Xavier Deniau) 및 세네갈, 레바논, 포르투갈, 다호메이의 전직 대통령인 압두 디우프(Abdou Diouf), 샤를 엘루(Charles Hélou), 마리오 소아레스(Mario Soarès), 데를랭 쟁수(Emile Derlin Zinsou), 부르키나파소 공화국 대통령 블레즈 캉파오레(Blaise Campaoré). 이 외에도 이슬람 문제 담당 정부차관(1947-1948) 자크 오가르드(Jacques Augarde), 해외영토 부처 및 영토 정부차관 올리비에 스티른(Olivier Stirn), 전 헌법위원회 위원(1965-74) 프랑수아 뤼셰르(François Luchaire) 등을 열거할 수 있다.<sup>16)</sup>

해외영토학술원은 현재 정회원(membre titulaire) 100명, 자유회원(membre libre) 25명, 준회원(membre associé) 50명, 통신원(correspondant) 100명 등 총 27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회원 또는 자유회원으로 선출되려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신원은 프랑스인이나 외국인 중에서 선출될 수 있다. 이 모든 회원은 학술원 활동에 속하는 저서, 연구, 업적을 통해 두각을 나타냈거나 해외영토 국가에 대한 문화, 과학, 경제, 기술, 인간 연구에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 중에서 선출된다. 정회원과 통신원은 총 5개 분과에 각각 20명씩 나뉘어 속하게 된다. 각 분과의 의장은 회의와 활동을 주재한다. 각 분과가 담당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제1분과: 역사, 지리, 민족학 및 언어 과학, 제2분과: 정치 및 행정 과학, 제3분과: 법률, 경제 및 사회과학, 제4분과: 물리, 자연, 생물학 및 그 응용, 제5분과: 교육, 문학, 고고학 및 미술. 각 분과에는 정회원과 통신원 이외에도 자유회원과 준회원이 존재한다. 학술원 사무국은 원장, 부원장, 종신 사무총장과 정회원 및 자유회원이 선출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24년 현재 해외영토학술원 원장은 루이 도미니시(Louis Dominici), 부원장은 크리스틴 드수쉬(Christine Desouches)이며 종신 사무총장은 도미니크 바르조(Dominique Barjot)이다.

---

16) <https://www.academieoutremer.fr/histoire/> (검색일: 2024년 1월 10일).



해외영토 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해외영토학술원의 메인 홈페이지<sup>17)</sup>는 학술원의 조직과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먼저, 홈페이지 화면 상단 가운데에는 해외영토학술원(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글자가 새겨져 있고, 바로 아래에는 ‘학술원 회원(Académiciens)’, ‘제1분과(1° section)’, ‘제2분과(2° section)’, ‘제3분과(3° section)’, ‘제4분과(4° section)’, ‘제5분과(5° section)’, ‘자유회원(Membres Libres)’<sup>18)</sup>, ‘준회원(Membres Associés)’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 중 ‘학술 회원(Académiciens)’ 난은 알파벳 순으로 ‘성함(Nom, Prénom)’, ‘소속 분과(Section)’, ‘직업(Fonction)’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성함을 클릭하면 학술원 회원의 전반적인 소개를 볼 수 있는데, 정회원, 준회원, 통신원 등의 구분과 몇 분과에 속하는지를 볼 수 있고, 임명 날짜, 직업, 관심 분야와 지역, 수여 받은 훈장 등이 인물사진과 함께 소개된다. 예를 들어 쿠숨 아가르왈(Kusum Aggarwal)이란 인물은 제5분과 통신원이고, 2017년 6월 9일 임명되었으며, 식민지 문학 교수이며, 관심 분야는 식민지 문학과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문학, 교육, 프랑스어, 프랑스어권, 인도, 프랑스, 일본, 아프리카이다.<sup>19)</sup> 전반적 소개 아래에는 상자 안에 약력(biographie)과 저서(bibliographie)가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저서에 대한 다른 학자의 서평과 최근 활동을 참고할 수도 있다.

‘학술원 회원’ 난 옆에 있는 각 분과(section) 항목 관련해 설명하면, 해외영토학술원은 업무(fonction) 별로 총 5개 분과로 구성된다. 제1분과(1° section)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역사학, 지리학, 민족학과 언어학을 담당하며, 의장은 부뤼노 델마스(Bruno Delmas)<sup>20)</sup>, 부의장은 롤랑 푸르티에

17) <https://www.academieoutremer.fr/> (검색일: 2024년 1월 3일).

18) 학술원의 자유회원은 비문 및 문학 아카데미(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과학 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 미술 아카데미(Académie des Beaux-Arts) 또는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에 속한 회원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정회원(membre titulaire)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만 그들에게처럼 모든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https://www.dictionnaire-academie.fr/article/A8L0506> (검색일: 2024년 1월 3일).

19) <https://www.academieoutremer.fr/academiciens/?ald=1222&section=5> (검색일: 2024년 1월 4일).

20) 브뤼노 델마스(Bruno Delmas)는 고문서학자이다. 엑상프로방스 정치대학을

(Roland Pourtier)<sup>21)</sup>이며, 정회원 20명, 통신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분과 역시 원장, 부원장, 각각 20여명의 정회원과 통신원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를 클릭하면 분과 의장의 인사말 동영상상을 볼 수 있으며, 회원 명

졸업한 그는 라틴 아메리카 고등연구소와 고등연구실용학교의 감사관을 역임했다. 그는 국립문서고(Archives nationales)의 큐레이터(1966-1971)로 임명되었으며, 유네스코 전문가로 활동하며 코트디부아르 국립문서보관소 프로젝트(1972-1973)를 담당했다. 그 후 세네갈의 다카르 대학교에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를 위한 지역기록보관자 훈련센터에서 활동했다(1973-1976). 프랑스 기록보관소 큐레이터(1976-1977)를 역임했으며, 샤르트르 국립고문서학교(École nationale des Chartes) 교수(1977~)로 재직중이다. 튀니스 고등문서연구소의 기록 보관 부문을 담당했고(1982-1990), 국립시정각연구소의 기록보관소 소장직을 역임한(1997-2001) 브루노 텔마스는 2007년 해외영토학술원 제1분과 정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15년에 학술원 원장이자 제1분과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https://www.academieoutremer.fr/academiciens/?ald=173&section=1> (검색일: 2024년 1월 3일).

- 21) 2010년 5월 5일, 해외영토학술원 제1분과 정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23년 해외영토학술원 원장에 취임한 톨랑 푸르티에는 생클루드(Saint-Cloud)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했고, 파리 1대학의 명예교수이다.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원(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파리 1대학, 4대학, 7대학 등을 하나로 아우르는 혼합 연구기관인 지리정보 정리 및 보급 연구센터(UMR Prodig: Pôle de recherche pour l'organisation et la diffusion de l'information géographique)의 부총장을 역임했다(1998-2004). 가봉, 공간 조직 및 훈련에 관한 논문으로 국가박사학위를 받았다(1986). 그는 가봉국립대학교 조교수와 지리학과장(1970-1975)을 역임했고, 이후 석유회사 엘프-가봉(Elf-Gabon)에서 문화간 경영 세미나를 담당했다(1991-1995).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앙아프리카 이니셔티브(INICA: Initiative pour l'Afrique centrale) 컨설턴트 직책을 맡고 있다. 『프랑스 지리학자 및 현대 아프리카 협회 회보(Bulletin de l'Association de géographes français et d'Afrique contemporaine)』와 『지리학 연보(Annales de géographie)』의 편집위원이며, 2008년까지 파리 1대학과 프랑스 지정학 연구소에서 열대 지리학, 아프리카 지리학, 개발 지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주로 중앙아프리카, 콩고 분지, 오대호 지역과 이들 공간의 정치적 불안정, 폭력, 위기 및 지속적인 변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 학술연구 평가 기관인 연구 및 고등교육 평가 기관(AERES: Agence d'évaluation de la 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평가위원회, 국립도서센터 전문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포럼과도 협력하고 있다. <https://www.academieoutremer.fr/academiciens/?ald=182&section=1> (검색일: 2024년 1월 3일). 그의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Le Gabon*. Tome 1, 2 (Paris: L'Harmattan, 1989); (avec Jean-Louis Chaléard) *Politiques et dynamiques territoriales dans les pays du Sud*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0); *Congo, un fleuve à la puissance contrariée* (Paris: CNRS Éditions, 2021) (Ouvrage récompensé du prix Jean-Sainteny de l'Acadé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

단을 클릭하면 이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볼 수 있다. ‘분과’ 난 옆에는 25명의 자유회원과 50여 명의 준회원 난이 존재하며, 역시 회원들의 이름을 클릭하면 이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 연결된다.

그 아래에는 배경 화면 위에 총 4개의 설명이 자동으로 지나가며 소개된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알기(Savoir), 이해하기(Comprendre), 존중하기(Respecter), 사랑하기(Aimer)” 라는 해외영토학술원의 좌우명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화면에서는 “학술원은 100명의 정회원, 25명의 자유회원, 50명의 준회원, 즉 175명의 회원과 100명의 통신원으로 구성된다” 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설명은 “학술원은 매달 첫 번째와 세 번째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하며 여기서 회원이나 외부 인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발표한다” 이며, 네 번째 화면에는 “학술원 기관지인 『세계와 문화(Mondes et Cultures)』는 창립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다. 잡지는 원장의 환영사, 신입회원 입회 연설, 회원과 외부 인사의 발표문 등과 같은 학술원 회의의 모든 회의록을 수록하고 있다” 고 기술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항목 아래에는 ‘학술원 회의(Les séances de l’ Académie)’, ‘뉴스, 행사(Actualités, Événements)’, ‘최신 서평(Dernières recensions)’ 난이 존재한다. 월 2회 열리는 ‘학술원 회의’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회의의 프로그램과 내용, 개·폐회 연설 등을 소개하는 ‘통지(Communications)’ 난과 정회원, 준회원, 자유회원 등으로 임명된 이들의 취임 연설과 이들을 축하하는 연설로 구성된 ‘취임(Installations)’ 난으로 구성되며, 각각 링크로 연결되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sup>22)</sup> 예를 들어 2021년 11월 19일 ‘통지’ 난에서는 제2분과 소속의 줄리 앙뒤랭(Julie d’ Andurain)과 도미니크 바르조가 진행한 “(프랑스) 제2제정과 식민지 정책(Le Second Empire et la politique coloniale)” 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소개한다. 프로그램을 보면, 마크 에카르디 드 생폴(Marc Aicardi de Saint-Paul) 학술원 원장의 인사말, 사

22) 학술원 홈페이지 ‘통지’ 난에서는, 2024년 5월 현재, 2020년 10월 2일부터 2022년 6월 17일까지의 알림 사항을 볼 수 있으며 (<https://www.academieoutremer.fr/communications-academie/>), ‘취임’ 난에서는 20년 10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 사이에 임명된 인물들의 동영상이나 혹은 문서 양식의 인사말(<https://www.academieoutremer.fr/installations/>)을 참조할 수 있다.

회를 맡은 도미니크 바르조의 소개 발언에 이어, “나폴레옹 3세의 아랍 왕국, 선구적인 정책인가 아니면 우유부단한 시도인가?”, “나폴레옹 3세의 식민지 인식”, “극동 문제: 아시아와 프랑스. 제2제국의 순간”, “코친차이나의 해군(1858-1870): 경솔한 식민지화” 등의 발표문<sup>23)</sup>과 제2분과 소속의 앙두랭의 “맺음말(Propos conclusifs)” 이 소개되어 있다. 물론 해외영토학술원 홈페이지에서는 인사말과 발표문 전문을 참조할 수 있다.<sup>24)</sup>

화면 좌편에 소개된 메뉴에도 ‘학술원 회의’ 난이 존재하며, ‘취임’ 난뿐 아니라 ‘프로그램(Programmes)’ 난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2023년도와 2024년 말까지의 회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해외영토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몇몇만 소개하면, “마다가스카르 스카우트 운동: 1924-2024. 100년의 역사, 100년의 교육, 100년의 헌신(Le scoutisme malgache: 1924-2024. 100 ans d’ histoire, 100 ans d’ éducation, 100 ans d’ engagement)” (3월 19-20일) ; “아프리카에서의 프랑스와의 군사협력의 가능성(L’ avenir de la coopération militaire française en Afrique)” (5월 17일) ; 메오(Meaux)에서의 “제1차 세계대전과 프랑스 식민 제국(L’ Empire colonial français dans la Grande Guerre)” 주제하의 전시회 소개(6월 6일) ; “프랑스어권(La Francophonie)” (6월 7일) ; “프랑스 개발청과 아프리카(L’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et l’ Afrique)” (6월 20일) ; “이민 문제: 모로코와 이탈리아의 상황, 프랑스에서 망명할 권리(Problématiques migratoires : situations au Maroc et en Italie, droit d’ asile en France)” (7월 5일) 등을 주목할 수 있다.<sup>25)</sup>

---

23) Jacques Frémeaux(식민지사 전공의 파리 4대학(소르본) 명예교수. 학술원 제1분과 위원), “Le Royaume arabe de Napoléon III, politique visionnaire ou essai velléitaire?” ; Éric Anceau(파리 4대학 조교수), “La vision coloniale de Napoléon III” ; Jean-François Klein(해양사, 식민지사 전공의 르아브르 노르망디 대학 교수. 학술원 제1분과 위원), “La question d’ Extrême-Orient: l’ Asie et la France. Le « moment Second Empire »” ; Michèle Battesti(역사학 박사. 해양사와 19세기 전공자. 군사학교전략연구소 명예 연구 책임자), “La marine en Cochinchine (1858-1870): une colonisation par inadvertance” .

24) <https://www.academieoutremer.fr/seance-du-19-novembre-2021> (검색일: 2024년 1월 11일).

25) <https://www.academieoutremer.fr/programmes-seances/> (검색일: 2024년 1월 12일).

‘뉴스, 행사(Actualités, Événements)’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0여 개에 달하는 해외영토 관련 저서 소개, 출판기념회, 학술회의 등의 다양한 소식과 행사를 전한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1일에 개최된 “전초기지로로서의 해외영토(Les Outre-mer aux avant-postes)”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는 마요트(Mayotte) 지역의 불안정, 해외영토 수호의 필요성,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지역의 효용성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sup>26)</sup> 또한 2024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에 걸쳐 “예술, 미디어, 탈식민화(Arts, Médias, Décolonisations)”라는 주제하에 파리 8대학 콩도르세 캠퍼스(Campus Cibirceet)의 150호 강당(Auditorium 150)에서 열린 학술대회도 언급할 수 있다. 총 5개의 패널이 구성되었으며 패널별 토론 주제는 “혁명을 위한 예술과 미디어?”, “예술적 탈식민지화의 순환: 아프리카, 카리브해, 프랑스”, “소리의 이동과 탈식민지화”, “초국가적 순환: 아프리카, 쿠바, 소련”, “전파를 통한 탈식민지화: 라디오, 연극, 협력”이었으며<sup>27)</sup>, 각 패널 주제마다 각각 3편의 발표문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패널이 참석하는 “탈식민지 예술과 미디어 아카이브”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열렸다.<sup>28)</sup>

---

26) “Frappée par l’insécurité, Mayotte peut-elle redevenir la perle de l’océan Indien?”, Avec Gérard Darmanin, ministre de l’Intérieur et des Outre-mer, Modération: Etienne Gernelle, directeur du *Point*; “Quand l’ avion est « vital »: pourquoi il faut défendre la continuité territoriale dans les Outre-mer”, Avec Olivier Serva, député de la Guadeloupe, Pascal de Izaguirre, président-directeur général de Corsair, Modération: Nicolas Bastuck, journaliste au *Point*; “Protection, exploration, projection: à quoi servent l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Avec Christophe-André Frassa, sénateur, membre du Conseil consultatif d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Florence Jeanblanc-Risler, préfète d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Modération: Romain Gonzalez, journaliste au *Point*. <https://www.academieoutremer.fr/> (검색일: 2024년 1월 13일).

27) “Arts et médias au service des révolutions?”, “Circuits des décolonisations artistiques: Afrique, Caraïbe, France”, “Migrations sonores et décolonisations”, “Circulations transnationales: Afrique, Cuba, URSS”, “Décoloniser par les ondes: Radio, théâtre, coopération”.

28) “Table Ronde Archives artistiques et médiatiques des décolonisations”. [https://www.academieoutremer.fr/wp-content/uploads/2024/01/Art\\_media\\_dec\\_olonisation.pdf](https://www.academieoutremer.fr/wp-content/uploads/2024/01/Art_media_dec_olonisation.pdf) (검색일: 2024년 1월 15일).

‘최신 서평(Dernières recensions)’ 난에는 2024년 3월 1일 이후부터, 장 피에르 필리우(Jean-Pierre Filiu)의 『395년부터 오늘날까지 중동의 역사(Histoire du Moyen-Orient de 395 à nos jours)』에 대한 크리스티앙 로송(Christian Lochon)의 서평 단 하나만이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로 소개되어 있다.<sup>29)</sup> 하지만 하단의 ‘모든 서평(Toutes les recensions)’ 난을 클릭하면 2024년 3월의 총 5편의 서평과 함께 ‘해외영토학술원 서평 목록(Archives • Rechercher dans le CaRASOM(Catalogue des Recensions de l’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이 존재하며, 책 제목별, 저자 알파벳 순, 출판사, 출판연도, 주제, 다루는 지역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저서의 서평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영토학술원 우애협회(Société des amis de l’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의 경우, 1942년에 학술원 외부의 인사들이 학술원 활동(회의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술원과 회원들의 연구 업적물 출판, 도서관을 위한 저서 구입, 학술상 제정, 학술 연구 기금 조성 및 해외영토 연구 임무 등과 같은 다양한 학술 목적에 할당될 기금을 모집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우애협회의 또 다른 목적은 “학술원 회원들의 기억을 보존하는 데” 있다. 매년 갱신되는 회원 자격은 학술원 활동을 알리는 프로그램과 회람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sup>30)</sup>

### III. 간행물 및 연구 분야

해외영토학술원은 매달 첫 번째와 세 번째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하며 이때 회원이나 외부 인사들이 학술원의 역할과 자신들의 전공 관련 주제들에 대해 발표한다.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중 프로그램과 인사말 등은 학술원 홈페이지의 ‘통지(Communications)’ 난에 소개되며, 학술원 기관지 『세계와 문화』에도 게재된다. 창간 이후부터 프랑스 해외영토에 대한 주요 정보의 원천이었던 『세계와 문화』는 수많은 외국 기관 및 대학과도 연

---

29) Christian Lochon(Recension rédigée par), “Jean-Pierre Filiu, *Histoire du Moyen-Orient de 395 à nos jours*” (Paris: Éd. du Seuil, Points, 2023). [https://www.academieoutremer.fr/images/files/20240209\\_f674eebca103f2a2c9727e0c45b0dc9.pdf](https://www.academieoutremer.fr/images/files/20240209_f674eebca103f2a2c9727e0c45b0dc9.pdf). (검색일: 2024년 1월 18일).

30) <https://www.academieoutremer.fr/societe-des-amis-de-lacademie/> (검색일: 2024년 1월 18일).

계하고 있다. 학술원은 또한 해외영토에서 일하고 국가의 명성에 기여한 프랑스인과 외국 인사들을 기리는 인물 사진인 『인간과 운명(*Hommes et destins*)』을 출간한다. 이렇듯 해외영토학술원은 창립 이래 잡지, 회보, 저서, 인명사전, 연감(annuaire), 별쇄본 등의 다양한 출판물을 간행하고 있다. 그것은 식민지 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해외영토 관련 학술원의 입장과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간행물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에 필요하고 유용해 보인다.

먼저 창립 이래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해외영토학술원 저널인 『세계와 문화』는 모든 학술원 회의 및 행사 발표문과 이에 대한 보고서, 신입 회원을 위한 환영 연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24년 발행된 1922-1923년 회의 내용을 다루는 창간호부터 29호(1939)까지 『회의 보고서(*Comptes-rendus des séances*)』<sup>31)</sup>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이 잡지 창간호에는 학술원 조직, 분과, 회원 명단, 내부 규정, 창립선언서, 1, 2, 3차 창립 준비모임 회의록 등과 함께, 「프랑스 식민지 정책에서 운송의 중요성」, 「“해외영토 파병 부대 설명서”에 대하여」, 「에드몽 뒤 비비에 드 스트렐의 “프랑스 식민지의 기억”」, 「사하라 횡단철도」 등에 관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sup>32)</sup>

---

31) 해외영토학술원의 잡지 『세계와 문화』는 다음과 같이 이름을 변경해왔다. 『회의 보고서(*Comptes-rendus des séances*)』(1922-1939), 『식민지학술원 회의 보고서(*Comptes-rendus des séances de l'Académie des sciences coloniales*)』(1941-1946), 『식민지학술원 월간 회의 보고서(*Comptes rendus mensuels des séances de l'Académie des sciences coloniales*)』(1947-1957), 『해외영토학술원 월간 회의 보고서(*Comptes rendus mensuels des séances de l'Académie des sciences d'outre-mer*)』(1957-1970), 『해외영토학술원 계간 회의 보고서(*Comptes rendus trimestriels des séances de l'Académie des sciences d'outre-mer*)』(1971-1977), 『세계와 문화(*Mondes et Cultures*)』(1978-).

32) Gabriel Hanotaux, “De l’importance des transports dans la politique coloniale de la France” ; Général Charles Mangin, “Sur le “Manuel à l’usage des troupes employées outre-mer”” ; P. Pelet et Georges Capus, “Le “Souvenir Colonial français”” ; Edmond Du Vivier de Stree, “Le Chemin de fer transsaharien”. [https://odyssee.univ-amu.fr/files/original/2/620/BUT-Yp-50707\\_Academie-sc-coloniales\\_1922-1923\\_T01.pdf](https://odyssee.univ-amu.fr/files/original/2/620/BUT-Yp-50707_Academie-sc-coloniales_1922-1923_T01.pdf) (검색일: 2024년 1월 20일). 창간호부터 67호(2007)년까지의 목차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라.

[https://www.academieoutremer.fr/wp-content/uploads/2019/04/TablesMetC1923-2007-CorrespTome\\_IndexVersionBAT.pdf](https://www.academieoutremer.fr/wp-content/uploads/2019/04/TablesMetC1923-2007-CorrespTome_IndexVersionBAT.pdf) (검색일: 2024년 1월 22일).

또한 『세계와 문화』는 1973년부터 해외영토학술원의 정기적인 학술모임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와 내용을 따로 정리하여 『별쇄본(*Tirés à part*)』을 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5권이 발행된 별쇄본 중 몇몇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해외영토 국립학교 100주년」, 「프랑스 해외영토와 프랑스 방어: 미래를 위한 추가 논의」, 「해외영토, 역사의 보증」, 「모로코의 리요테 원수」, 「전염병과 해외영토」, 「프랑코포니: 부쿠레슈티 정상회담 이후의 문제와 전망」, 「프랑스 해외영토국립학교 졸업생의 외교부 근무」<sup>33)</sup>.

해외영토학술원은 『세계와 문화』와 함께 또 다른 학술지 『아날(*Annales*)』을 1925년부터 1936년까지 총 9권 발간했다.<sup>34)</sup> 이 잡지에서는 주로 프랑스 식민지, 식민지화 역사, 식민지 경제와 고고학 관련 주제를 다루었다. 1925년에 발행된 창간호에는 「모로코 정부와 알제 정복(셰리프(chérif. 아랍권 지역의 왕) 문서)」, 「타나나리브(Tananarive. 마다가스카르의 수도)의 말라리아 예방에 관한 보고서」, 「인도차이나 최초의 신석기 시대」, 「저서 『캄보디아 기념물』의 인도-중국 박물관에 대한 설명과 보완」 등의 논문을 발견할 수 있다.<sup>35)</sup>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고대 및 근대 전기서지

---

33) Séance du 18 octobre 1985, “Centenaire de l’ École nationale de la France d’ outre-mer” , Tiré à part de *Mondes et Cultures*, 46-1(1986); André Teulières, “Outre-mer français et défense de l’ Hexagone: une dissuasion complémentaire pour demain” , 47-1(1987); “L’ Outre-mer, une caution d’ Histoire” , 64(2004); Séance d’ actualité ouverte sous la présidence de M. Jacques Augarde; accueil de M. Gilbert Mangin, “Le Maréchal Lyautey au Maroc” , 65(2005); “Les Maladies infectieuses et l’ outre-mer” , 67(2007); Colloque sous le haut patronage de S. E. Monsieur Abdou Diouf, Secrétaire général de la francophonie, “Francophonie: enjeux et perspectives après le sommet de Bucarest” , 67(2007); Communication de Louis Dominici, “Le passage aux Affaires étrangères des anciens élèves de l’ École Nationale de la France d’ Outre-mer” , 79(2019). <https://www.academieoutremer.fr/6956-2/> (검색일: 2024년 1월 23일).

34) 관련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 <https://odyssee.univ-amu.fr/exhibits/show/lettres-sciences-humaines/item/476#?c=0&m=0&s=0&cv=0> (검색일: 2024년 1월 10일).

35) Ismael Hamet. “*Le gouvernement marocain et la conquête d’ Alger* (documents chérifiens)” ; “Rapport sur la prophylaxie du paludisme à Tananarive” ; Dr. Couvy. “Note sur la campagne antipaludéenne à



(bio-bibliographie) 종합 사전<sup>36)</sup>이라는 제목의 제8권 또한 주목된다. 극동 프랑스학교(École française d’ Extrême-Orient) 초대 학장이자 고등교육원(École des Hautes-Études) 학장인 루이 피노(Louis Finot)의 주도로 수행된 본 작업은 1859년 이후 프랑스가 관리한 동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지닌 인물들에 주목했다. 다양한 출신 및 국적을 지닌 인물들을 모아 프랑스랭 인도차이나와 관련한 이들의 생애와 업적, 저작을 상세히 소개한 최초의 작업으로 평가된다.

해외영토학술원에서는 해외영토 관련 저서도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학술원 간행본(Les éditions de l’ Académie)’이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최근에 발행된 15권의 저서와 ‘오래된 출판물(Nos publications anciennes)’이라는 제목하에 주로 1970년대와 80년대 발행된 30여 권의 저서를 발행했다. 이 중 주목되는 몇 권만 소개하면, 먼저,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기념하여 간행된 『대전쟁 시기 프랑스 식민지 제국: 한 세기의 역사와 기억』<sup>37)</sup>을 주목할 수 있다.<sup>38)</sup>

다음으로 『마다가스카르 남동부 지역의 역사적 전통』<sup>39)</sup>을 언급할 수 있다. 아랍어와 마다가스카르 현지어로 작성된 사료 연구를 바탕으로 본 저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역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프랑스 전문가들이 정립해놓은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을 학술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본 저서는 독자들에게도 식민지화 이전의 ‘토착 자료’를 통해 왜곡된 식민지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인도차이나 관련해선, 2014년 초, “베트남의 해”이자 “프랑스-베트남/

---

Madagascar” ; Henri Mansuy. “Les premiers temps néolithiques en Indochine” ; Louis Delaporte, “L’ouvrage “Les Monuments du Cambodge“ commente et complète le Musée Indo-Chinois” .

36) Antoine Brébion, “Dictionnaire de bio-bibliographie générale, ancienne et moderne de l’ Indochine française” , *Annales*, Tome VIII(1935).

37) Jeanne-Marie Amat-Roze et Christian Benoit (dir.), *L’ empire colonial français dans la grande guerre: un siècle d’ histoire et de mémoire* (Paris: Dacres -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2020).

38) 이 저서와 관련해선 본 논문의 V장, “1차 대전 100주년과 프랑스 식민 제국” 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39) Philippe Beaujard, *Traditions historiques du sud-est de Madagascar* (Paris: Geuthner -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2019).

베트남-프랑스 교차의 해(2013-2014)(année croisée France-Viêt Nam/Viêt Nam-France(2013-2014))” 를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해외영토학술원은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의 국가 변혁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역사를 조망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 중 외국인 학자 10명과 30명의 프랑스 학자가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식민지 인도차이나로부터 현재의 베트남까지』<sup>40)</sup>는 기획되었다. 「정복과 저항」, 「식민지 사회와 적응: 현실과 표상 사이」, 「착취와 “경제 발전”」, 「비시와 일제 점령: 역사의 전환기인가? 가속기인가?」, 「탈식민지 베트남: 온건한 전환 또는 폭력적인 단절」 등 총 6개의 장으로 본 저서는 구성되어 있다.

『해외영토의 프랑스 존재, 16세기에서 21세기까지』<sup>41)</sup>는 6년 동안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작업의 점진적인 진행 상황을 해외영토학술원에 보고한 위원회(commission)에 의해 제작된 두 권으로 구성된 프랑스 식민지 역사 총서이다. 제1권은 16세기부터 현재까지 프랑스와 프랑스인이 유럽 이외의 해외영토에 진출한 다양한 방식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3개의 역사적 시기(16세기~19세기 전반, 19세기~20세기 전반, 1950, 60~현재)와 이들이 진출한 세계 지역에 따라 설명된다. 이 저서는 해외영토학술원 고유의 사명에 따라 수행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내용이 철저하지는 않지만 세계사에서 프랑스의 특성을 표시하는 틀과 다면적인 행동을 독자에게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저술되었다. 제2권은 과학과 기술, 종교, 문화에 대한 주제별 접근 방식으로 프랑스 영향력의 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다.

해외영토학술원이 간행하는 또 다른 잡지인 『인간과 운명』은 프랑스 해외영토의 주요 인물이나 그곳에서 활동했던 프랑스인, 해외영토 정책 관련 인물들에 대한 인명사전이다. 총 11권이 발행되었으며, 각 권에서 다루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권(1975) 아프리카, 2권(1977) 아프리카, 아메리카, 앤틸리스 제도(Antilles), 3권(1979) 마다가스카르, 4권(1981) 아프리카, 아시

---

40) Dominique Barjot et Jean-François Klein (dir.), *De L'Indochine coloniale au Viêt Nam actuel* (Premiers entretiens d'outre-mer présentés par Pierre Gény) (Paris: Académie des sciences d'outre-mer, 2017).

41) Philippe Bonnichon, Pierre Gény et Jean Nemo (dir.), *Présences françaises outre-mer, XVI<sup>e</sup>-XXI<sup>e</sup> siècles. Tome 1 - Histoire: périodes et continents, Tome. 2 - Science, religion et culture* (Paris : Académie des sciences d'outre-mer - Karthala, 2012).

아, 앤틸리스 제도, 5권(1984) 식민지 팽창(Expansion coloniale), 6권(1985) 아시아, 7권(1984) 북아프리카-아랍 동부(Maghreb-Machrek), 8권(1988) 총독, 행정관, 치안판사, 9권(1989) 블랙 아프리카(Afrique noire), 10권(1995) 아메리카, 11권(2011) 블랙 아프리카. 총 2,650여 명의 인물을 프랑스 역사가들이 각각 2-3쪽 분량으로 다룬 이 잡지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관련 인물들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해외영토학술원의 특별한 관심과 연구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마지막으로 해외영토학술원에서 발행하는 출간물로 학술원 『명부(annuaire)』를 들 수 있다. 학술원의 역사, 조직, 기능 및 활동을 다루고 있는 이 명부에는 원장, 부원장 및 종신 사무총장의 연대순 목록, 각 분과의 원장 및 부원장 목록, 상임 위원회 구성원, 학술원 회원의 알파벳순 목록 및 인물 소개, 사망한 학술원 목록, 학술원 정관 및 내부 규정. 또한 전년도에 주요 행사와 각종 학술원상 수상작도 수록되어 있다.<sup>43)</sup>

각종 학술원상 관련해서 언급하면, 해외영토학술원은 해외영토 문제 관련 다양한 주제의 작품에 학술원이 직접 제정한 다양한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다. 몇몇 종류를 언급하면, 식민화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작품에 대해서는 뤼뒤랑레비유(Luc-Durand-Réville)상, 아프리카 국가 관련해선 폴 부르다리(Paul-Bourdari)상, 아프리카 역사에 대해서는 로베르 코르느뱅(Robert-Cornevin)상, 해외도(DOM) 혹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바누아투(Vanuatu)의 옛 프랑스 식민지 문제를 다룬 작품에 대해서는 폴 부테이에(Paul-Bouteiller)상, 아메리카 및 앤틸리스 제도 관련해선 로베르 들라비네트(Robert-Delavignette) 상, 아시아, 인도차이나 또는 태평양 지역은 오귀스트 파비(Auguste-Pavie)상,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또는 인도양 관련해선 루이 위베르 리요테 원수(Maréchal-Louis-Hubert-Lyautey)상, 대학생 논문, 박사논문 또는 박사 후 연구에 관해서는 연구 격려상(Prix d’ Encouragement à la recherche)이 수여된다.<sup>44)</sup>

42) 인명 색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academieoutremer.fr/wp-content/uploads/2021/07/IndexHD1a55.pdf> (검색일: 2024년 1월 25일).

43) <https://www.academieoutremer.fr/annuaire-de-lacademie/> (검색일: 2024년 1월 26일).

44) <https://www.academieoutremer.fr/liste-des-prix/> (검색일: 2024년 1월 27일).

앞서 언급했듯이, 식민지학술원은 1957년 해외영토학술원으로 명칭을 개명했는데, 이는 학술원의 이전 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 ‘식민지학술원’이라는 ‘식민주의 경향’이나 지배-종속 관계를 연상시키는 용어로부터 더 객관적이고 덜 공격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해외영토학술원’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이전과는 다른 식민지 정책의 추구나 식민주의 유산에 대한 거부의 움직임을 표명한 것은 아닐까? 위에서 살펴본 학술원 간행물이나 연구 분야를 검토해보면 꼭 그렇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 학술원 기관지 『세계와 문화』 1957년과 1958년에 실린 기사들, 다시 말해 인도차이나전쟁이 종결되고, 튀니지와 모로코가 독립하고, 알제리전쟁은 알제 전투로 건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프랑스 지배하에 있을 때, 학술원 명칭을 변경하며 탈식민화 흐름에 대처해나가고자 한 해외영토학술원은 여전히 프랑스 사하라 지역의 보존을 강조하며<sup>45)</sup>, 식민지 개척자와 식민지 부대 의사를 추모하고<sup>46)</sup>, 식민지의 위생 문제와 보건 서비스 활동<sup>47)</sup>, 그리고 해외영토 농촌경제<sup>48)</sup>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해외영토학술원의 학술 활동이 프랑스 일방의 역사가 아닌 식민주의 유산을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 서술의 시도로 평가될 수 있는 시점은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과 관련한 해외영토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있고 난 뒤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V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

45) Francis Borrey, “L’ actualité des problèmes humains en éremologie saharienne” , *Mondes et Cultures*, 1957; Charles Britsch, “Frontières et voies de communication dans le Sahara français” (1957); Pierre Cornet, “L’ organisation du Sahara” (1957).

46) Raymond Decary, “Guillaume Grandidier, homme de science” , *Mondes et Cultures*, 1957 ; Francois de Chasseloup-Laubat, “Hommage à Conrad Kilian”(1958); Luc Durand-Réville, “A propos de la pose sur la mairie de Libreville d’ une plaque en souvenir du gouverneur Noël Ballay” (1958); Georges Girard, “Le médecin-général Gustave Bouffard 1872-1957” (1957).

47) Luc Durand-Réville, “Les problèmes sanitaires et l’ action du Service de Santé au Gabon” , *Mondes et Cultures*, 1958.

48) M. Rossin, “Les caractères de l’ économie rurale outre-mer: nécessités de son développement et moyens propres à le favoriser” , *Mondes et Cultures*, 1957.

#### IV. 식민지 자료의 보고(寶庫) 펠릭스 우푸에부아니 도서관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해외영토학술원과 프랑스 총리 마뉴엘 발스(Manuel Valls), 총리 직속 하의 공공 행정기관인 법무행정정보국(DILA: Direction de l’ 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대표단 간에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후자는 “아프리카, 해외영토 및 식민지” 컬렉션을 해외영토학술원으로 이전했으며, 학술원 도서관은 프랑스어만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해외영토에 대한 기억을 전담하는 주요 서지 참고 센터가 되었다. 해외영토학술원의 펠릭스 우푸에부아니(Félix Houphouët-Boigny) 도서관<sup>49)</sup>은 약 130,000여 개의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단행본 115,000권, 출간 중인 100여 종류를 포함한 4,600여종의 정기 간행물, 역사 지도 600여 장, 필사본 1,000권, 10,000권의 팸플릿과 별쇄본이 그것이다. 해당 카탈로그는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컬렉션은 대학문서화시스템(Sudoc: Le Système universitaire de documentation)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된 이곳은 해외영토국립문서고(ANOM: Archives nationales d’ outre-mer)가 역상프로방스로 떠난 이후 과거와 현재의 프랑스 및 해외영토에 대한 파리 지역의 주요 참고자료 센터가 되었다.

해외영토학술원 회원이나 우애협회 회원 외에도 대학교수, 연구원, 박사과정생, 언론인, 작가 및 모든 나라의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도서관은 구매, 기부, 유산을 통한 식민지 기억의 생생한 문서 그룹(Fonds)을 보유

---

49) 해외영토학술원 도서관은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알라산 우아타라(Alassane Ouattara)의 개관식 이후 2020년 2월 14일부터 펠릭스 우푸에부아니(Félix Houphouët-Boigny)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코트디부아르 최초의 의사 중 한 명으로 행동주의자이자 과학자이기도 한 우푸에부아니(1905-1993)는 코트디부아르 총리를 거쳐 1993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이전에 프랑스 국회의원과 장관직(1956-1960)을 수행하면서 프랑스 정계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20년 동안 학술원의 활동적인 회원이었다. 코트디부아르와 아프리카를 넘어선 그의 학술적이고 정치적인 여정은 학술원 도서관 이름에까지 영감을 준 것이다. 도서관에는 코트디부아르에 관한 거의 천 권에 달하는 저서, 지도, 희귀한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영토도서관 관련 해설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Marie-Laure Bretin, “Un fonds économique à la Bibliothèque Félix Houphouët-Boigny de l’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 *Revue française d’histoire économique*, 15(2021), pp. 190-195.

하며, 이에 대한 논평은 매월 학술원 서평 목록인 카라숨(CaRASOM: Catalogue des recensions de l'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에 게재된다. 학술원의 저명한 회원은 사후 기증을 통해 도서관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도서관은 또한 2014년 아카데미 범무행정정보국이 학술원에 이전한 45,000권의 고유한 “아프리카, 해외영토 및 식민지” 컬렉션을 카탈로그에 통합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도서관은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중해 북아프리카-아랍 동부(Maghreb-Machrek)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특히 라망(Lamant)<sup>50)</sup> 컬렉션의 약 150개 회고록, 논문집 및 학위논문 및 인도에 관한 풍부한 문서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물학자이자 민족학자이며 동시에 식민지 행정관이었던 레이몽 데카리 문서 그룹(Fonds de Raymond Decary)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및 인도양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다른 도서관과 비교할 때 드물게도 이 도서관은 주목할 만한 식민지 문학 컬렉션도 소장하고 있다. 식민지 작가(auteurs coloniaux)의 소설은 모두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민지 지배자뿐만 아니라 식민지인의 삶을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은 종종 잊힌 이 작가들은 문학을 넘어서는 역할을 했다. 롤랑 도르젤레스(Roland Dorgeles)와 같은 전문 작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만다린 로드(Eoute mandarine)’<sup>51)</sup>를 여행했으며<sup>52)</sup>, 종종 언론인이기도 한 이들 식민지 작가들은 군인, 의사, 엔지니어, 행정가였다. 이들 가운데 레오폴드 세다르 상고르가 네그리튀드

---

50) 피에르 뤼시앙 라망(Pierre-Lucien Lamant)은 국립동양언어문화연구소(INALCO: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7년에 사망했다. 그의 생애와 학문적 여정 관련해서는 Jean-François Klein, “In Memoriam Pierre-Lucien Lamant (1926-2007)”, *Mousson*. 13-14(2009), pp. 373-380을 참조하라.

51) 만다린 로드(Route Mandarine)는 19세기 자롱(Gia Long) 황제 치하에서 개통된 도로로, 베트남 남부(메콩강 삼각주에 있는 까마우(Cà Mau))와 중국 국경 근처 북쪽의 랑선(Lang Son) 지역을 연결한다. 예전에 베트남 관료와 고위 관리들이 전국을 여행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만다린 로드라고 불렸다. 1,730km에 이르는 도로는 하노이(Hanoi)를 베트남의 주요 도시인 이전 응우옌 왕조의 수도였던 후에(Hué) 및 다낭(Danang), 나짱(Nhatrang), 사이공(Saigon)과 연결한다. 그 경로는 현재 부분적으로 1번 국도로 사용되고 있다.

<https://vietnamoriginal.com/notre-blog/la-route-mandarine-ou-parcourir-le-vietnam-du-nord-au-sud.html> (검색: 2024년 1월 28일).

52) Roland Dorgeles, *Sur la route mandarine* (Paris: Albin Michel, 1925).

(Négritude)의 선구자로 인정한, 소설 『바투알라(Batouala)』<sup>53)</sup>로 1921년 앤틸리스 제도(Antilles)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공쿠르상(Prix Goncour)을 수상한 르네 마랑(René Maran)을 주목할 수 있다.<sup>54)</sup>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식민지와 식민지인이 프랑스에 의해 관리되는 방식을 비난했다. 당시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마랑의 “어휘에 속하지도 않았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종종 ‘반식민주의’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의 작품 중 21편이 해외영토학술원 도서관 카탈로그에 수록되어 있다. “툼북투로 가는 길(sur la route de Tombouctou)”<sup>55)</sup>의 레이몽드 본느탱(Raymonde Bonnetain)이나 차드(Tchad)에 대해 발표한 드니즈 모랑(Denise Moran)<sup>56)</sup>부터 그들이 거주했던 인도차이나에 대해 글을 쓴 잔느 뢰바(Jeanne Leuba)<sup>57)</sup>,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가 높이 평가한 앙드레 비올리(Andrée Viollis)<sup>58)</sup>, 그리고 최근에는 프랑스 영화 및 TV 프로듀서로 더 알려진 마그 보다르(Mag Bodard)<sup>59)</sup>에 이르기까지 여성 식민지 작가들 역시 학술원 도서관의 카탈로그를 풍성하게 해준다.

2020년에 도서관은 링크드인(LinkedIn)<sup>60)</sup> 계정과 디지털 자료를 검색할 수

- 
- 53) René Maran, *Batouala: véritable roman nègre* (Paris: Albin Michel, 1921).
- 54) 르네 마랑의 공쿠르상 수상 100주년과 『바투알라』 확장판 출간을 기념하여 프랑스 국립 도서관(BN)은 공쿠르 아카데미와 협력하여 2021년 12월 1일에 기념행사를 기획했다. 같은 해 11월 19일, 파리 의회는 파리의 한 문화 시설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로 의결했다. Monique Calinon, “René Maran, précurseur de la négritude”, *Chroniques de la BnF*, 92(2021), p. 29.
- 55) Raymonde Bonnetain, *Une Française au Soudan. Sur la route de Tombouctou, du Sénégal au Niger* (Paris: Librairies-Imprimeries réunies, 1894; Éditions l’Harmattan, 2007).
- 56) Denise Moran. *Tchad* (Paris: Gallimard, 1934).
- 57) Jeanne Leuba, *La Tristesse du soleil* (Paris: Plon-Nourrit et Cie, 1913); *L’Aile de feu* (Paris: G. Vanoest Publications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20); *La Brève lumière* (Paris: Flammarion, 1930).
- 58) Andrée Viollis, *Indochine S.O.S* (pref. André Malraux) (Paris: Gallimard, 1935) ; *Notre Tunisie* (Paris: Gallimard, 1939).
- 59) 마그 보다르는 한때 프랑스 여성 주간지 『엘(Elle)』의 인도차이나 특파원이었다. Mag Bodard, *L’Indochine, c’est aussi comme ça* (Paris: Gallimard L’air Du Temps 1954).
- 60) 링크드인(LinkedIn)은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전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다. 페이스북 등의 여타 소셜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특정 업계 사람들이 서로 구인 구직, 동종업계 정보 팔로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있는 뉘무트르메르(Numoutremer)를 개설하여 인터넷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후자는 도서관 소장품의 일부 귀중한 작품, 오래된 지도, 역사적 사진 등의 디지털 버전을 제공한다. 2021년에 도서관은 콜엑스-페르세(CollEx-Persée)<sup>61)</sup> 우수 컬렉션(Collection d' Excellence CollEx-Persée)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대학 연구를 위한 컬렉션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해외영토학술원은 코트디부아르 초대 대통령으로서 1960년부터 1993년까지 재임한 우푸에부아니의 이름을 딴 펠릭스 우푸에부아니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영토 관련 풍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학술원 홈페이지 좌측의 도서관 관련 링크는 ‘홈 화면(Accueil)’, ‘도서관 소개(Présentation)’, ‘신간(Nouveautés)’, ‘아프리카 해외영토와 식민지 문서 그룹(Fonds “Afrique Outre-mer et colonies” )’, ‘최신 수상 도서(Le derniers ouvrages primés)’, ‘이미지 도서관(La Bibliothèque en imgs)’, ‘실용 정보(Information pratiqu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홈 화면(Accueil)’으로 들어가면, 서평 목록(CaRASOM), 도서관 목록(HORIZON), 기타 디지털 자료(Numoutremer) 등의 링크로 연결된다. ‘서평 목록’에서는 해외영토 관련 저서에 대한 서평들을 참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제리’ 관련 저서에 대한 서평의 경우 200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총 140개에 이르는 서평을 접할 수 있다. 최근 서평의 경우, 알제리전쟁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sup>62)</sup>, 프랑스의 알제리 점령 초기에 대한 분석<sup>63)</sup>, 알제리전쟁 시기 프랑스의 반식민주의<sup>64)</sup>, 프랑스 점령 시기 알제리 지식인 사회<sup>65)</sup> 등의 저서에 대한 서평을 접할 수 있다. ‘기타 디지털 자

---

61) CollEx-Persée는 학술 연구에 유용한 문서를 홍보하고 연구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서관 간 협력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다. Catherine Désos-Warnier, “CollEx-Persée et le développement de nouveaux services dédiés aux chercheurs”, *Arabesques*, 95(2019), pp. 6-7.

62) Paul Max Morin, *Les jeunes et la guerre d'Algérie: une nouvelle génération face à son histoir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Humensis, 2022). Recension rédigée par Elisabeth Dufourcq(엘리자베스 뒤푸르크가 작성한 서평).

63) Colette Zytnicki, *La conquête: comment les Français ont pris possession de l'Algérie, 1830-1848* (Paris: Tallandier, 2022). Recension rédigée par Jacques Frémeaux.

64) Sadek Sellam (textes compilés par), *Anticolonialisme en Franc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Paris: Héritage, 2022). Recension rédigée par Jacques Frémeaux.

65) Jean-Yves Bertrand-Cadi, *L'Algérie des sociétés savantes: leur*



료’에서는 학술원 도서관 자료 중 일부 귀중한 작품, 오래된 지도, 역사적 사진, 포스터, 주제별 참고문헌 등의 디지털 버전을 제공한다. 이 중 ‘디지털 도서(Livres numériques)’의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남극대륙, 해외영토, 기타 등 대륙별로 분류된 도서의 내용 전문을 제공한다.

해외영토학술원 도서관에서는 각종 문학상을 받은 최근 저서에 관해서도 소개한다. 먼저 이사벨 쉘(Isabelle Scheele)의 『트랜스 제국의 관계: 유럽 제국주의의 정점에 있던 독일 토고와 프랑스 다호메이의 사례』<sup>66)</sup>는 “식민지화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작품의 수상을 목적”으로 해외영토학술원이 2002년에 제정한 프랑스 문학상인 퓌뒤랑레비유상의 2022년 수상작이다. 본 저서의 저자는 1884-1914 기간, 독일 토고와 프랑스 다호메이의 사례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트랜스 제국 관계를 재고한다. 그의 작업은 식민지 지배자와 식민지인 간의 경쟁과 갈등의 양상뿐 아니라 협력과 권리의 양도(transfert)의 시도도 분석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중동부의 ‘아프리카의 뿔(Corne de l’ Afrique)’ 지역을 다루는 작품 중 젊은층의 관심을 유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와 그 세 가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2017년부터 12월에 수여되는 알베르 베르나르(Albert Bernard)상의 2022년 수상작은 위그 폰텐느(Hugues Fontaine)의 『메넬리크(Ménélik): 사진작가들의 아비시니아, 1868-1916』<sup>67)</sup>이다. 19세기 말, 아비시니아(에티오피아) 고원은 전 세계의 탐험가들을 매료시켰다. 사진 장비를 갖춘 일부 사람들은 1889년 11월에 에티오피아 여러 왕국의 ‘왕 중의 왕(Negusse Negest. Roi des rois)’이 된 쇼아(Choa) 왕국의 메넬리크 2세의 국가에 대한 최초의 이미지를 기록했다. 본 저서는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의 모습을 410장의 사진, 삽화, 지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contribution et leur héritage(1830-1962)* (Paris: Geuthner, 2022) (Prix Maréchal Hubert Lyautey 2023). Recension rédigée par Jacques Frémeaux.

66) Isabell Scheele, *Les relations transimpériales: l’exemple du Togo allemand et du Dahomey français à l’apogée de l’impérialisme européen* (Berlin: Peter Lang, 2021).

67) Hugues Fontaine, *Ménélik: une Abyssinie des photographes 1868-1916* (Nanterre: Amarna, 2020).

사피아투 디알로(Safiatou Diallo)의 『기니의 보건 정책: 식민지화부터 21세기 초까지』<sup>68)</sup>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학적, 예술적, 의료적, 사회적 사업이나 일반 또는 과학적 관심 분야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2002년에 해외영토학술원에 의해 창설된 폴 부르다리상의 2022년 수상작이다. 식민지화부터 21세기 초까지의 기니의 보건 정책을 분석한 본 저서는 의료 개혁, 의료 인프라 및 그것의 전국적 분포, 의료 전문가를 위한 훈련 제공, 간병인-환자 관계 및 의약품 공급의 기본 원칙을 검토한다. 이러한 모든 측면은 외세의 지배에서부터 세쿠 투레(Sékou Touré, 1958-1984 재임) 하의 단일 정당 및 국가 통제의 통치, 로자나 콩테(Lansana Conté) 이후 경제적 자유주의 및 민영화의 현대적 부상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저서는 기니의 현재 의료 시스템의 기능 장애와 결함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채택된 조치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2020년부터 펠릭스 우푸에부아니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해외영토학술원 도서관은 현재 엑상프로방스의 해외영토국립문서고와 함께 옛 식민지와 해외영토 관련 자료에 있어 프랑스에서 가장 풍성한 도서관이 되었다. 2021년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우수 컬렉션(collection d'excellen)’ 인증을 받은 이 도서관은 명칭이 말하듯, 식민지 자료는 물론이고,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자료의 보고(寶庫)로 인정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 V. 1차 대전 100주년과 프랑스 식민 제국

해외영토학술원은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기념하여 5개년 계획인 “제1차 세계대전과 프랑스 해외영토(Les outre-mer français dans la Grande Guerre)”를 발표했다.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의 사명(Mission du centenaire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sup>69)</sup>의 승인을 받은 이 프로

---

68) Safiatou Diallo, *Politiques de santé en Guinée: de la colonisation au début du XX<sup>e</sup> siècle* (Paris: L' Harmattan, Coll. “Études africaines”, 2021).

69)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은 재향군인 담당 정무차관 (secrétaire d'État chargé des anciens combattants)의 담당 하의 공익단체로서, 외무부, 국방부, 문화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들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의 사명(Mission du centenaire de la Première

그림은 아프리카, 안틸레스-가이아나(Antilles-Guyane), 인도양, 아시아 및 태평양 출신의 프랑스를 방어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온 모든 남성과 병사, 노동자를 향한 일종의 헌사(獻辭)였다. 학술원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해외영토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이 설립한 단체”<sup>70)</sup>였다. 학술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학술적이고 교육적이면서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쟁과 승리에 대한 해외영토 참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했다. 1차 대전 100주년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학술원은 사실과 지식을 전달하고, 식민지 군대의 전쟁 참여와 그것의 결과와 유산에 경의를 표하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련의 행사, 토론회, 학술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해외영토 기억의 여정(chemins de mémoire des outre-mer)”을 소개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 학술대회의 개막식은 파리 시청에서 개최되었다. 2014년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전투원의 동원 및 (전쟁) 참여”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고, 2015년 3월에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전쟁에 기울이는 노력, 생산 및 자금 조달”에 대해 논의했으며, 2016년 1월의 세 번째 회의는 “해외영토 전투원과 노동자에 대한 대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반란, 저항: 대립, 반란, 시위, 영향”을 주제로 열린 2017년 행사는 2017년 6월 9일에 열렸으며, 2018년 11월 15일과 16일, 학술원과 앙발리드(Hôtel national des Invalides)의 오스테릴리츠(Austerlitz) 강당에서 최종 주제인 “명예, 기념: 표창, 기억의 날, 풍경 속 장소”가 소개되었다.<sup>71)</sup>

학술회의와 함께 해외영토 병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전장을 방문하는 연구

---

Guerre mondiale)’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이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관 공식사이트인 <http://centenaire.org/fr/la-mission/la-mission-du-centenaire>에서 참조할 수 있다.

70)

<https://www.academieoutremer.fr/le-centenaire-de-la-grande-guerre-et-lacademie/> (검색일: 2024년 1월 28일).

71) 2014: “Mobiliser et engager les combattants”, 2015: “Produire et financer, l’effort de guerre”, 2016: “Soigner les combattants et travailleurs d’outre-mer”, 2017: “Se révolter, résister: oppositions, révoltes, manifestations, impacts”, 2018: “Honorer, commémorer: reconnaissances, journées du Souvenir, place dans les paysages”.

여행(voyage d'étude)도 기획되었다. 2014년 10월 우르크(Ourcq) 및 마른(Marne), 2016년 6월 아르투아(Artois) 및 플랑드르(Flandres), 2016년 9월 베르됭(Verdun), 2017년 9월 슈맹드담(Chemin des Dames)에서 뫼즈-아르곤(Meuse-Argonne)의 공세 지역까지 방문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각 년도 별 발표 주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2014년 1월에 열린 개막식은 “대전쟁을 위한 해외영토 부대의 동원(La mobilisation des troupes d'Outre-mer pour la Grande Guerre)”이라는 주제 하에 저명한 의사인 피에르 살리우(Pierre Saliou)의 사회로 프로방스(Provence) 대학 명예교수 마르크 미셸(Marc Michel)과 릴(Lille) 대학 명예교수 장 마르탱(Jean Martin)의 발표, 그리고 파리시 해외영토 총대표(déléguée générale à l'Outre-Mer de la Ville de Paris) 다니엘 아포칼(Danielle Apocale)의 인사말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와 협력하여 “식민지 동원(Mobiliser les coloniaux)”이라는 주제로 해외영토학술원에서 2014년 10월 23일 열린 학술대회는 식민지사 전공의 파리 4대학 교수 자크 프레모(Jacques Frémeaux)의 기조 발표 이후, “소말리아 전투부대 모집 및 지휘”, “전쟁의 목소리가 울릴 때: 제1차 세계대전의 시험대에 오른 모시(Mossi)<sup>72)</sup> 지역”, “1917년 8월 세네갈 보병 61 전투부대의 반란: 해외영토 부대에서 겪은 독특한 경험?”, “원주민 부대: 동맹국으로서의 불확실한 지위”,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모로코의 인도차이나 병사” 등의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sup>73)</sup>

“전쟁 노력에 대한 프랑스 해외영토의 기여(1914-1918)(La contribution de l'outre-mer français à l'effort de guerre(1914-1918))”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 2차연도의 학술대회에서는 2015년 3월 12일에 “프랑스 제국의 기여, 전반적 시각”과 “1차 대전 당시의 현

---

72) Mossi(s)는 부르키나파소 중부와 가나 북부, 토고, 베냉, 코트디부아르에 정착한 서아프리카의 민족이다.

73) Jacques Frémeaux, “Présentation et réflexion d'ensemble” ; Yves Bertrand-Cadi, “Le recrutement et le commandement du bataillon somali” ; Benoit Beucher, “Quand battent les tambours de guerre: le pays mossi à l'épreuve de la Grande Guerre” ; Bastien Dez, “La Mutinerie du 61<sup>e</sup> bataillon de tirailleurs sénégalais en août 1917: une expérience singulière parmi les troupes d'outre-mer ?” ; François Lagrange, “Les troupes indigènes: un statut incertain d'alliés” ; Michel Bodin, “Les soldats indochinois durant la Grande Guerre au Maroc” .

제의 DOM TOM(프랑스 해외도(島) 및 해외영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같은 해 6월 4일에는 학술원 회원들이 아르투아와 플랑드르 전장과 이프르(Ypres) 전쟁박물관(In Flanders Fields Musee)을 방문했다. 6월 5일 프랑스 해외영토학술원과 벨기에 해외영토왕립학술원(Académie royale des sciences d’outre-mer)이 공동 개최한 브뤼셀 대학재단(Fondation universitaire à Bruxelles)에서 열린 학술회의의 주제는 “전선의 식민지 부대(Les rroupes coloniales au front)”였다. 특히 앙트완 샹포 중령(Lieutenant-colonel Antoine Champeaux)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군의 원주민 부대. 디스뮈드에서의 참전(Les troupes indigènes de l’armée française pendant la Grande Guerre. Leur engagement à Dixmude)”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은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군대 내의 ‘원주민 군대(troupes indigènes)’, 특히 아프리카 군대(Armée d’Afrique)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군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코모로(Comoro), 인도차이나 보병과 인도와 태평양 식민지 군대를 소개했다. 동원, 전쟁 노력 및 전투, 모집 및 반란, 손실 및 인정, 요구와 전투원의 기억 등의 식민지 병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1914년 11월 이프르(Ypres)와 디스뮈드(Dixmude)에서 “디스뮈드의 배척받은 자들”로 알려진 식민지 보병 군단인 ‘세네갈 보병(tirailleurs sénégalais)’ 3개 대대(알제리 제2대대(2° BTS(Bataillon de tirailleurs sénégalais) d’Algérie), 알제리 제1대대, 모로코 제3대대)의 교전을 설명한다. 이 외에도 “제1차 세계대전 속의 인도인 병사”, “제1차 세계대전 중 아프리카에서 경찰 기능 수행 군대(troupes de la Force publique)의 활용”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다음날인 6월 6일에는 브뤼셀의 왕립군사박물관과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전시회 방문이 이루어졌다.<sup>74)</sup>

2016년의 학술대회는 “1차 대전과 해외영토 징집병에 대한 의료 지원(Le soutien médical des contingents d’ outre-mer dans la Grande Guerre)”이라는 제목으로 해외영토학술원-육군보건의료박물관우애협회(ASOM-AAMSSA(Association des amis du musée du service de santé des armées)) 공동 주관으로 2016년 3월 17일 발드그라스(Val-de-Grâce) 군 병원에서 열렸다. 제1분과: “질병과 고통(Maladies et souffrances)”, 제2분

74)

<https://www.academieoutremer.fr/le-centenaire-de-la-grande-guerre-et-lacademie/les-manifestations-pour-lannee-2015/> (검색일: 2024년 1월 30일).

과: “프랑스 본토에서의 징집(Les engagements en métropole)”, 제3분과: “프랑스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징집(Les engagements loin de la métropole)” 이라는 대주제 하에 “제국의 동원”, “병리학, 어떤 특이성? 세네갈 보병의 사례”, “말라리아와 동양인 부대”, “해외영토의 위생 관리”, “적도 아프리카에서의 전투와 지원”, “이미지를 통해서 본 해외영토 지원”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sup>75)</sup> 한 달 뒤 2016년 4월 15일의 학술회의의 주제는 “해외영토에서의 1차 대전(La Grande Guerre dans les outre-mer)” 이었다. 이날 “말리에서의 대전쟁의 기억”, “코트디부아르 철도와 1914-1918 전쟁”, “『바이네트(*Baionnette*)와 『제뷔(*J’ ai vu*)』 두 신문을 통해서 본 대전쟁 시기 아프리카인의 이미지”, “마다가스카르 혼혈종족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1차 대전” 등의 논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sup>76)</sup>

2016년은 제1차 세계대전 최악의 전투로 일컬어지는 베르됭 전투 100주년의 해이기도 했다. 프랑스 동부의 베르됭 주변에서 해외영토학술원은 너무 자주 잊히고 거의 명예를 얻지 못하는 해외영토 출신 전사들의 여정을 되짚어보는 일정을 마련했다. ‘이 길(Ce chemin)’은 방문객 각자가 프랑스군과 함께 싸웠던 이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순례길이었다. 학술원 회원들은 오몽프레사모니유(Haumont-près-Samogneux)에서 베르됭 또는 두오몽(Douaumont)을 거쳐 플뢰리드방두오몽(Fleury-devant-Douaumont)까지 해외영토에서 온 병사들이 프랑스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소를 2016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방문했다. 일정 중 가장 중요한 행사는 베르됭 전장에 해외영토 참전용사들을 위한 ‘기억의

---

75) Jean Martin, “La mobilisation de l’ Empire”; Marc Morillon, “Les pathologies, quelles spécificités? L’ exemple des tirailleurs sénégalais”; René Migliani, “Paludisme et armée d’ Orient”; Louis-Armand Héraut, La prise en charge sanitaire des outre-mer “; Louis-Armand Héraut, “Combattre et soigner en Afrique équatoriale”; Jean-Marie Milleliri, “Soigner les Outre-mer: parcours iconographique” .

76) Sébastien Philippe, “Mémoires de la Grande Guerre au Mali”; Jean-Jacques Fadeuilhe, “Le chemin de fer de la Côte d’ Ivoire et la guerre de 1914-1918”; Alain Tirefort, “L’ image des Africains pendant la Grande Guerre: deux organes de presse, La *Baionnette* et *J’ ai vu*”; Violaine Tisseau, “La Grande Guerre comme stratégie pour les métis de Madagascar” .

<https://www.academieoutremer.fr/le-centenaire-de-la-grande-guerre-et-lacademie/les-manifestations-pour-lannee-2016/> (검색일: 2024년 1월 31일).

길(Chemin de mémoire)’ 77) 개통식이었다. 방문 이틀째, 두오몽 요새(Fort de Douaumont)에서 알제리, 튀니지 및 모로코 병사를 기리는 비석 제막식에 해외영토학술원 대표단이 참석한 후 요새 입구에서 해외영토 부대의 기억의 길 개통식과 요새 내부에서 해외영토 부대를 추모하는 학술원의 명판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지리학자이자 해외영토학술원 및 제1차 세계대전 명예 회장인 잔마리 아마트 로즈(Jeanne-Marie Amat-Roze)에 따르면 ‘기억의 길’의 목적은 “어느 날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를 방어하기 위해 배를 타고 온 모든 사람의 기억을 기리기 위한 것” 78)이었다.

너무 자주 잊힌 전투원들의 여정을 되짚어보기 위해 베르딩에 20단계에 이르는 이 길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이 매장되지 않고 지하에 묻혀 있으며, 비록 그들의 이름이 전쟁 기념관에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느 전장에서 프랑스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지 반드시 알 수는 없다. 많은 이들이 해외영토에서 왔다. 나는 1차 대전의 운명에 의해 하나가 되고, 싸우러 왔고, 쓰러진 모든 이들이 이 길을 이끌었다는 커다란 흐름 속에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79)

베르딩 전투의 묘지에는 55,000명 이상의 확인된 군인과 전장에 피를 흘린 수천 명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묻혀 있다. 기억의 길은 방문객 각자가 프랑스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순례길이다. 기억의 길은 국립 산림청과 협력하여 해외영토학술원이 개발했으며, 베르딩 국유림의 ‘특별한 숲(Forêt d’exception)’ 인증 프로젝트 계약의 일부이다.

2017년에는 1차 대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연구 여행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3월 15일의 주제는 “전장의 해외영토 부대에 대한 기

---

77) ‘기억의 길’의 목적은 오늘날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과거의 흔적을 모아 경로에 고정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기념 유산을 홍보하는 것이다. 총 30여 개에 달하는 이 ‘기억의 장소’ 중에는 베르딩 기념관(Le Mémorial de Verdun), 두오몽 납골당(L’ Ossuaire de Douaumont), 포브르그 파베 국립묘지(La nécropole nationale du Faubourg Pavé) 등이 포함되어 있다. <https://www.academieoutremer.fr/wp-content/uploads/2018/11/CDM2.pdf> (검색일: 2024년 2월 1일).

78) <https://lalere.francetvinfo.fr/grande-guerre-chemin-memoire-troupes-outre-mer-414693.html> (검색일: 2024년 2월 1일).

79) *Ibid.*

역, 베르딩 전장의 사례(La mémoire des troupes d' outre-mer sur les champs de bataille, exemple du champ de bataille de Verdun)”였으며, 6월 9일의 주제는 “반항하다, 저항하다(Se révolter, résister)”였다. 2017년 9월 6일에는, 2016년에 이어, 해외영토학술원의 1차 대전 격전지에 대한 방문이 마련되었다. 해외영토 부대의 발자취를 따라 학술원 회원들은 슈맹드담, 샹파뉴(Champagne), 뫼즈-아르곤(Meuse-Argonne)을 방문했다.<sup>80)</sup>

1차 대전 100주년 기념의 마지막 해 역시 두 차례에 걸쳐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5월 25일은 ‘이미지 & 기억(Images & Mémoires)’ 협회와 공동으로 1차 대전 당시 ‘흑인 부대’의 창설에 큰 역할을 했던 세네갈 출신 의원 블레즈 디아뉴(Blaise Diagne)에 대한 3편의 논문과 “광저우만 조차지와 1차 대전”, “1차 대전 기간 토고의 이미지” 등이 발표되었고<sup>81)</sup>, 11월 15, 16일에는 “프랑스 해외영토와 19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1차 세계대전. 명예롭게 하다, 기념하다(L’ outre-mer français et la Grande Guerre 1914-2018. Honorer, commémorer)”라는 주제로 총 1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sup>82)</sup>

해외영토학술원의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2021년 3월 출간된 『대전쟁 시기 프랑스 식민지 제국: 한 세기의 역사와 기억』<sup>83)</sup>이라는 제목의 저서이다. 50여 명의 민간인, 군인 저자, 학자, 연구자, 의사, 학예연구원의 공동작업의 산물인 이 저서는 해외영토학술원의 5년간의 노력의 산물이다. 여전히 유익한 1차 대전 100년 역사에 관해 이

---

80) <https://www.academieoutremer.fr/le-centenaire-de-la-grande-guerre-et-lacademie/les-manifestations-pour-lannee-2017/> (검색일: 2024년 2월 5일).

81) Jean Martin, “1918, de Dakar à Bamako la Mission Blaise Diagne” ; Hélène Grandhomme, “Le Sénégal de Blaise Diagne, une vieille terre française secouée par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 Benoit Beucher. “La mission Diagne replacée dans l’ histoire des sociétés africaines: le cas des pays voltaïques” ; Alain Tirefort, “Kouang-Tchéou-Wan et la Grande Guerre” ; Stéphane Richemond, “Images du Togo dans la Grande Guerre” .

82) <https://www.academieoutremer.fr/le-centenaire-de-la-grande-guerre-et-lacademie/les-manifestations-pour-lannee-2018/> (검색일: 2024년 2월 10일).

83) Jeanne-Marie Amat-Roze et Christian Benoit (dir.), *L’ empire colonial français dans la grande guerre: un siècle d’ histoire et de mémoire* (Paris: Dacres -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2020).



연구는 전례 없는 다학문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군사적 측면은 물론 지리, 정치, 경제, 보건, 사회, 기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프랑스 제국의 전쟁 노력을 평가한다. 1914년 프랑스 포함 약 1억 명의 주민을 결집하고, 1천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제국 지역 거의 전체를 다루는 본 저서는 프랑스 식민지의 역사와 기억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프랑스 식민지 역사 기술이 여전히 민감한 상황에서 이 작업은 방법론적 수준에서 엄격하고, 학문 간 가교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고, 이념적 편견에서 최대한 분리된 신중한 입장을 채택한다. 이 저서는 한마디로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 바다를 건너온 70만 명의 병사, 군인, 노동자들에게 바치는 헌사이다.

전체 사망자 수와 참전군인 대비 사망자 비율, 총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이 다른 어느 참전국보다도 높았기에 전쟁의 의미가 각별했던 프랑스는 열성적으로 1차 대전 10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했다. 전쟁의 역사적 연원과 성격, 동시대인들의 전쟁 경험과 인식, 유럽인의 사유 방식과 일상생활 및 문화예술의 영역에 미친 영향뿐 아니라 전후 세대에 의한 전쟁의 인식과 기억, 1차 대전 100주년 기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평가에 관한 연구가 1914-1918년 100주년 기념 주기(週期) 동안 쏟아져 나왔다.<sup>84)</sup> 하지만 해외영토학술원의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은 특별했다. 전쟁 중 ‘식민지 원주민들’이 프랑스에 동원된 역사를 인정하고, 과거 식민지 역사를 폭넓게 연구, 서술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제1차 세계대전과 프랑스 해외영토” 관련 학술원 5개년 계획은 프랑스 사회가, 적어도 해외영토학술원이 식민지인들의 전쟁 참여 노력과 해외영토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식민주의 유산을 변용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VI. 해외영토학술원 100주년 기념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소르본 대학 대강당에서 해외영토학술원은 전·현직 국가 원수를 포함한 정치 지도자, 지식인과 연구자, 경제

---

84)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 관련해선, 이재원,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과 평가」, 『서양사학연구』, 33(2014. 12), pp. 95-123을 참조하라.

지도자, 예술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석한 모임을 통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했다. “100년의 열정과 해외영토를 넘어서(100 ans de passion et au-delà pour l’ Outre-mer)” 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서 환경, 인구,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및 사회 문제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고위 연사들이 자신의 관점과 전문 지식을 소개했다. 이전 프랑스 해외영토 국가들의 ‘지적 가치’에 특히 중점을 둔 이 행사에서 프랑스와 해외영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및 문화 관련 주제에 관한 토론과 교류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50여 개 나라에서 온 저명인사들과 베트남, 캄보디아, 모로코, 니제르 코트디부아르, 토고, 마다가스카르, 레바논, 이집트 등 총 50여 명의 주불 대사들이 참석한 본 행사는 주최 측에 따르면 “해외영토학술원 원장 롤랑 푸르티에의 후원하에 ‘정신의 자유(liberté d’ esprit)’와 ‘자유로운 의견(libre opinion)’이라는 보편적인 정신으로 이루어졌다”<sup>85)</sup>.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 참여자 패널의 구성은 학술원의 명성에 걸맞게 저명한 아프리카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저널리스트이자 지정학자이며 학술원 회원인 르노 지라르(Renaud Girard)가 진행한 라운드 테이블 “불확실한 세계에서 해외영토를 다시 생각하다”에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 대통령 알라산 우아타라(Alassane Ouattara)와 전 니제르 공화국 대통령 마하마두 이수푸(Mahamadou Issoufou)가 참석했다. 뒤이은 “대륙간 대화: 평화, 젊음, 문화”라는 제목의 라운드 테이블은 『정치와 의회 (Politique et Parlementaire)』지의 편집장인 아르노 베네데티(Arnaud Benedetti)의 진행하에 아프리카 대륙의 저명한 두 명사, 프랑스 주재 가봉 대사인 릴리안 마살라(Liliane Massala)와 세네갈 대사 엘 아지 마가트 세이(El Hadji Magatte Seye)가 참여했으며, 프랑스 주재 레바논 대사 라미 아드완(Rami Adwan)과 우루과이 대사 호르헤 루이스 후레(Jorge Luis Jure) 등도 함께 했다.<sup>86)</sup>

85) Eric Ranjalaly, “ART ORATOIRE - Le Kabary à la Sorbonne”, *L’ Express de Madagascar*, 17/05/23.

86) 해외영토학술원 100주년 컨퍼런스에는 패널리스트 외에도 파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아프리카 대사 월례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대사와 외교관들 역시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케인 아이차투 불라마(Kane Aïchatou Boulama) 니제르 대사, 프랑수아 은쿨루키임푸라(François Nkukiyimfura) 르완다 대사, 2015년 6월 10일 공화국 대통령령에 따라 프랑스 대사(Ambassadeur de France)로 승격된 알랭 르 로이(Alain Le Roy) 등이 자리했다. 그 밖에 아프리카의 저명한 참석자로는 알제리 작가이자 학술원 회

파리 아카데미(Académie de Paris)<sup>87)</sup> 학장인 크리스토프 케레로(Christophe Kerrero)와 해외영토학술원 종신 사무총장 피에르 제니(Pierre Génie)의 초청으로 코트디부아르의 펠릭스 우푸에부아니 대학 인류학 교수이자 교육부 장관인 마리아투 코네(Mariatou Koné)도 참석했다. 그는 축하 행사를 통해 학술원의 미래 비전, 미래 세계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되는 해외영토 관련 지식에 대한 학술원의 학문적 기여에 대해 언급했다.<sup>88)</sup> 마리아투 코네 이외에 단일 국가 출신이론 가장 많은 참가자를 보낸 코트디부아르 인사들, 특히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부 장관 아다마 디아와라(Adama Diawara), 프랑스 주재 코트디부아르 대사 모리스 쿠아쿠 반다마(Maurice Kouakou Bandama), 유네스코 상임 대표 바카요코 리 라마타(Bakayoko Ly Ramata), 상원의원이자 외교관인 샤탈 파니(Chantal Fanny)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측 인사로는 실비 르타이오(Sylvie Retailleau) 고등교육연구부 장관, 자비에 다르코스(Xavier Darcos) 프랑스 학술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영토학술원 종신 사무총장인 피에르 제니의 인사말로 100주년 기념식은 시작됐으며, 사회는 과들루프(Guadeloupe) 출신의 프랑스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인 크리스틴 켈리(Christine Kelly)가 맡았다. 현재 프랑스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인 마요트(Mayotte)에서의 긴장 상태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해외영토의 미래, 지정학적 격변, ‘프랑스어권(La Francophonie)’ 이 의제에 포함되었다.

먼저 오후 3시, 인사말(Ouverture)은 학술원 종신 사무총장인 피에르 제니가 맡았고, 실비 르타이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이 100주년 개막을 선포했다. 피에르 제니는 참석자들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해외영토’ 라는 표현이 해외에 존재하는 프랑스 영토를 의미할 뿐만 아니

---

원인 부알렘 산살(Boualem Sansal), 부르키나파소 전 외무부 장관 지브릴 바솔레(Djibril Bassolé)를 언급할 수 있다. 해외영토학술원 100주년 프로그램과 참석자 명단 관련해선 다음 링크를 참조하라.

[https://www.academieoutremer.fr/wp-content/uploads/2023/05/v20-programme\\_A4.pdf](https://www.academieoutremer.fr/wp-content/uploads/2023/05/v20-programme_A4.pdf) (검색일: 2024년 1월 10일).

87) 파리 아카데미(Académie de Paris)는 지리적으로 파리에 해당하는 학교 및 대학 지구이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ac-paris.fr/>이다.

88) *Afrique sur 7*, 25/05/2023. 2015년 10월 14일 프랑스에서 설립된 『7일간의 아프리카(*Afrique Sur 7*)』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특히 코트디부아르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이다.

라, 프랑스와 역사적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는 프랑스 국경 너머의 모든 국가를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영토학술원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새로운 비전을 주도하고, 수많은 국제 문제에 대한 성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라 프랑코포니(La Francophonie)<sup>89)</sup> 창설에 이바지한 성찰의 장소 중 하나임을 언급했으며, 학술원의 사명은 완전한 형제애 정신, 평화와 인권의 증진이며, 국제 시스템의 발전과 과제에 대한 더 많은 성찰에 있다고 역설했다.<sup>90)</sup>

100주년 기념식에서 논의된 학술 주제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해외영토를 다시 생각하다(Repenser l’ Outre-mer dans un monde incertain)” 였으며, 총 5개 부문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총 3명이 소개한 주제 관련 기조연설(Discours d’ ouverture sur la thématique)에서 먼저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알라산 드라만은 학술원 창립위원 중 한 명인 모리스 들라포스와 코트디부아르와의 인연, 학술원 도서관 이름으로 사용된 켈릭스 우푸에부아니 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 학술원과의 긴밀한 관계를 언급했으며,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국내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자찬했고, 라 프랑코포니의 중요성과 프랑스와 보다 긴밀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sup>91)</sup> 뒤이어 등장한 『피가로(Figaro)』의

---

89) 라 프랑코포니(La Francophonie)란 프랑스어를 모국어나 행정 언어로 쓰는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기구로서, 주로 적지 않은 인구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코폰(francophones)’ 이거나 프랑스어와 문화가 깊게 침투해 있는 곳이다.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라고 부른다. 1970년 니제르(Niger)에서 레오폴드 세다르 상고르에 의해 문화예술협력기구(Agence de coopération culturelle et technique)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홈페이지는 <https://www.francophonie.org/>이다. 라 프랑코포니 관련해선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Olivier Kassi, *Francophonie et justice: contribution de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à la construction de l’ État de droit* (Paris: L’Harmattan, 2020) ; Frédéric Turpin, *La France et la francophonie politique: Histoire d’un ralliement difficile* (Paris: Les Indes savantes, 2018).

90) Pierre Géný, “Ouverture”, Cérémonie du Centenaire, 26 mai 2023. Grnad Amphithéâtre de la Sorbonne. <https://www.youtube.com/watch?v=EnqWCQIoios> (검색일: 2024년 2월 15일).

91) 사실, 긴급한 국내문제로 100주년 행사 당일 아침 귀국한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부 장관 아다마 디아와라가 대신 전했다. 본 연설은 <https://www.youtube.com/watch?v=LFmW4TxzL9s>에서 참조할 수 있다.

칼럼니스트인 르노 지라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불안해진 세계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제3세계’로 불리는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 지역임을 지적하며, 프랑스와 해외영토 간 보다 적극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하마두 이수푸, 전 니제르 공화국 대통령은 해외영토학술원의 좌우명(devise)인 “알기, 이해하기, 존중하기, 사랑하기”는 불평등과 가난, 폭력과 테러리즘, 가난과 포퓰리즘, 가치의 위기와 인종주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현재성을 지니는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니제르의 정치, 경제, 사회, 안전, 보건 분야에 있어서 노력과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필요성을 강조했다.<sup>92)</sup>

해외영토학술원 원장 톨랑 푸르티에는 “담화(Allocution)”를 통해 때론 충돌하지만 때론 조화를 이루는 기억 속에 뿌리를 둔 프랑스와 해외영토와의 연결고리가 교류, 협력, 공동 이익 증진, 글로벌 도전에 대한 조화로운 대응 모색을 통해 끊임없이 구축됨을, 프랑스는 교차된 운명 속에서 해외영토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sup>93)</sup> 특히 유럽-아프리카 지역은 글로벌 지정학의 주요 요소를 구성하며, 아프리카는 세계 재편에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임을 강조하며, 많은 외국 인사, 특히 아프리카 인사들이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대표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은 상호 존중 속에 과학, 문화, 인본주의를 연관시키는 프로젝트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sup>94)</sup>

이후 다섯 개 부문(section)으로 나뉘어 진행된 발표와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영토: 역사에서 설계까지”. 2022년 해외영토학술원 원장인 위베르 루아즐뢰르 데 롱상(Hubert Loiseleur des Longchamps)의 발표.<sup>95)</sup>
2. “대륙 간 대화(평화, 젊음, 문화)(Dialogue entre les continents(paix, jeunesse, culture))”.<sup>96)</sup> 뒤이어 “세계화에 저항하는 라 프랑코포니?(La

92) [https://www.youtube.com/watch?v=ULQQ\\_wTkXi8&t=6s](https://www.youtube.com/watch?v=ULQQ_wTkXi8&t=6s) (검색일: 2024년 2월 17일).

93) Roland Pourtier, “Allocution”, Cérémonie du Centenaire, 26 mai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MzNupO8fBEQ> (검색일: 2024년 2월 18일).

94) *Ibid.*

95) Hubert Loiseleur des Longchamps, “L’ Outre-mer: de l’ histoire aux projets”. <https://www.youtube.com/watch?v=CG1nBliqNTzA> (검색일: 2024년 2월 18일).

Francophonie pour résister à la globalisation ?)” 라는 주제로 아르노 베네데티와 알제리 소설가 부알렘 상살(Boualem Sansal)<sup>97)</sup>의 대담.<sup>98)</sup>

3. 미래의 해외영토: 쟁점은 무엇인가(생물 다양성, 안전, 이민)(Demain l’ Outre-mer : quels enjeux ?(biodiversité, sécurité, immigration))” .<sup>99)</sup> 뒤 이어 “범아프리카주의의 부활이라는 맥락에서 아프리카와 프랑스 해외영토에서 온 이민집단 간의 관계 재창조(Réinventer la relation entre l’ Afrique et ses diasporas de la France d’outre-mer dans le contexte du renouveau du panafricanisme)” 를 주제로 토고 외무부 장관 로베르 뒤세(Robert Dussey)의 발표.

4. “해외영토를 위한 학문(Science pour l’ Outre-mer)” . 기욤 그랄레(Guillaume Grallet), 『르퐁앵(Le Point)』지 기자의 사회로 장푸랑수아 델프레시(Jan-François Delfraissy) 국가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프란신 엔투미(Francine Ntoumi) 개발연구소(IRD) 학술위원회 원장, 앙투안 프티(Antoine Petit)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원(CNRS) 원장이 참석한 좌담회.<sup>100)</sup>

5. “학회 간 대화(Dialogue interacadémique)” . 금석문·문예 아카데미<sup>101)</sup> 종신 사무총장 니콜라 그리말(Nicolas Grimal)과 장로베르 피트

---

96) 『정치와 의회(Politique et Parlementaire)』지 편집장 아르노 베네데티(Arnaud Benedetti)의 진행하에 레바논, 코트디부아르, 우루과이, 르완다 주불 대사의 좌담회. 이 토론에 참석 예정이었던 주불 한국대사 최재철은 불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tdgAvH3X24> (검색일: 2024년 2월 19일).

97) 부알렘 상살은 2015년 그의 소설 『2084: 세상의 종말(2084: la fin du monde)』로 공쿠르상과 함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인 그랑프리 뒤 노벨(Grand Prix du Nobel de l’ Académie française)을 수상했다.

98) <https://www.youtube.com/watch?v=BtdgAvH3X24> (검색일: 2024년 2월 20일).

99)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제도적 관계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이마즈 에이전시(agence imaGGe) 회장이자 프랑스 국제방송국인 전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쇼날(RFI: Radio France internationale) 총책임자인 즈느비에브 고엣징거(Geneviève Goëtzinger)가 진행을 맡고, 부르키나파소 외무부 장관 지브릴 바솔레(Djibril Bassolé), 콩고 공화국 수상 아나톨 콜리네 마코소(Anatole Collinet Makosso), 마요트(Mayotte) 국회의원 에스텔 유수파(Estelle Youssouffa), 해양 및 기후 플랫폼(Plateforme Océan et Climat) 부사장이자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원(CNRS) 학술 고문 프랑수아즈 가이유(Françoise Gaill)가 참석한 좌담회. <https://www.youtube.com/watch?v=gTS8XNasuQw> (검색일: 2024년 2월 21일).

100) 본 좌담회 내용에 대한 동영상이나 서면 자료는 해외영토학술원 측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다.

101) 금석문·문예 아카데미(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는 프

(Jean-Robert Pitte), 윤리·정치학 아카데미<sup>102)</sup> 종신 명예 사무총장 간의 “학회(Académie) 간의 공조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관한 대담.<sup>103)</sup> 이 100주년 행사에서는 마다가스카르 웅변 예술이자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인 ‘카바리(Kabary)’<sup>104)</sup>가 소개되기도 했다. ‘마다가스카르어 사용자 협회(FIMPIMA: Fikambanan’ny mpikabary malgache)’ 의장인 하니트라 안드리암보아본지(Hanitra Andriamboavonjy)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애의 카바리(Kabary de Fraternité pour un monde meilleur)” 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도모니아 라토보손(Donoina

---

랑스에서 1663년 장뵘티스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가 소 아카데미(La Petite Académie)라는 이름으로 창설했으며, 1816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금석문·문예 아카데미는 처음에는 루이 14세의 위상을 돋보일 건축물과 메달에 적합한 금석문과 표어를 창작하다가, 이후 역사와 고고학 관련 단체가 되었다. 1795년부터 프랑스 학술원으로 통합되어 본 임무를 추구하고 있다. 관련 홈페이지는 <https://aibl.fr/>이다.

102) 윤리·정치학 아카데미(Acadé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는 프랑스 학술원을 구성하는 5개의 아카데미 중 하나이다. 1795년 설립하여 1803년 폐지되었다가 장관이자 아카데미 회원인 프랑수아 기조(François Guizot)의 영향으로 1832년 재설립된 윤리·정치학 아카데미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담당하는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기관이다. 관련 홈페이지는 <https://academiesciencesmoraletespolitiques.fr/>이다.

103) <https://www.youtube.com/watch?v=6cGncwS3HY> (검색일: 2024년 2월 23일).

104) ‘마다가스카르 카바리(Malagasy kabary)’ 는 청중 앞에서 이미지로 가득한 말을 웅변하는 시적 담론이다. 본래 지도자들이 사회생활과 행정에 관한 정보를 공동체에 전달하기 위해 해야 하는 연설이었으나, 이후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행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또는 소통을 위해 이용되었다. 마다가스카르 카바리는 축제나 장례식, 공식행사, 대중 행사 등의 마다가스카르 사회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마다가스카르 카바리는 ‘카바리를 연행하는 사람’ 또는 ‘웅변가’ 를 지칭하는 ‘음피카바리(Mpikabary)’ 가 자신의 지식, 노하우, 집단적 지혜, 재능 및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자 사회의 안녕과 영속성에 기여한다. 이 유산은 젊은 세대에게 전승되어 그 연속성이 보장됨에 따라 전통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국가적으로 볼 때 마다가스카르 카바리는 뛰어난 문체와 언어적 가치를 지닌 유산이다. 그것은 마다가스카르의 정신, 천재적인 언어 구사, 웅변의 예술을 나타낸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카바리의 현대적 연행은 사회적 유대를 지속하는 효과적인 수단에 해당한다. 마다가스카르 카바리는 2021년 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관련해선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Jennifer L. Jackson, “Building Publics, Shaping Public Opinion: Interanimating Registers in Malagasy “Kabary” Oratory and Political Cartooning”,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18-2(2008), pp. 214-235.

Ratovoson)은 카바리 공연을 선보였다.<sup>105)</sup> 기념식 말미에는 파트너십 계약 서명(Signature des conventions de partenariat)이 있었고, 공화국 수비대 오케스트라의 현악 4중주단(Quatuor à cordes de l'Orchestre de la Garde républicaine)의 공연 이후 파리 아카데미(Académie de Paris) 학장인 크리스토프 케레로의 폐회사로 해외영토학술원 100주년 기념식은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100주년 행사는 해외영토학술원을 위한 ‘기념의 단계’ 일 뿐 아니라, 주최 측에 따르면, “청소년을 위한 기여와 영향력의 입증 사이의 학문적 성찰의 전망을 통해 내일의 세계를 향한 필요한 투영”<sup>106)</sup>이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영토학술원은 창립 100주년 기념식의 서막으로 특히 청소년 대표들을 본부로 초대하여 국제 관계의 발전을 고찰하고자 했다. 5월 22일 월요일, 파트너인 경제정보전문가네트워크(Le réseau d'experts en intelligence économique)인 AEGE 아프리카 클럽(Le Club Afrique de l' AEGE)<sup>107)</sup>이 주최한 이 회의에는 협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학교와 대학의 학생 대표와 청년 전문가, 학술원의 피에르 제니 종신 사무총장과 롤랑 푸르티에 학술원 원장, 이마제(imaGGe) 회장이자 전 프랑스 국제방송국(RFI) 사무총장을 역임한 제느비에브 고엣칭거(Geneviève Goëtzinger), 프랑스국립학술연구원(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학술 고문 프랑수아즈 가이유(Françoise Gaill), 아프리카 및 프랑스어권 영사 상설 회의소(CPCCAF: Conférence permanente des chambres consulaires africaines et francophones) 총대표 드니 데샹(Denis Deschamps) 등이 참여했다. 이 회의를 통해 해외영토학술원 100주년 기념식은 “미래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사물을 움직이는 힘을 식별하고, 동맹 개발 및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설명할 기회”로 인식되었다.<sup>108)</sup>

---

105) <https://www.youtube.com/watch?v=OKvzYnraFqA> (검색일: 2024년 2월 25일).

106) “Influence et francophonie: 100 ans d'existence de l'Académie des Sciences d'Outre-Mer”, *Le Portail de l'intelligence économique*, 23/05/2023.

107) AEGE 아프리카 클럽(Le Club Afrique de l' AEGE)은 해외영토학술원의 파트너이자 아프리카 경제 정보 커뮤니티 내 강한 지도력으로 아프리카 청소년, 아프리카 이산 집단(디아스포라) 및 프랑스어권 세계의 영향력 있는 활동가들을 동원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관련 홈페이지는 <https://www.aege.fr/groupe/club-afrique-12> 이다.

108) “Influence et francophonie”, *Le Portail de l'intelligence économique*,



해외영토학술원 100주년 행사 관련하여, 특별히 로베르 뒤세 토고 외무부장관이 발표한 “범아프리카주의의 부활이라는 맥락에서 아프리카와 프랑스 해외영토의 아프리카인 이산 집단(디아스포라) 간의 관계 재창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프랑스 인사는 물론 해외영토 인사 대부분이 과거 양국 간의 식민주의에 기반한 역사를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의 더 긴밀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과 ‘라 프랑코포니’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로베르 뒤세는 범아프리카주(Pan-Africanism)의 부활이라는 현 상황에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에 관한 관심은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며 범아프리카주의 자체의 역사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109)</sup>

범아프리카주의는 디아스포라에서 처음 탄생했고, 디아스포라에 의해 전파된 후 (아프리카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나의 초대 대통령) 콰메 은크루마(Kwame Nkrumah), (세네갈 사학자) 셰이크 안타 디오프(Cheikh Anta Diop) 및 (탄자니아의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통령) 줄리어스 네에레레(Julius Nyerere) 같은 ‘위대한’ 인물들에 의해 대륙 차원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적 범아프리카주의와 대륙 규모의 범아프리카주의는 동일한 현실의 두 얼굴인데, 대륙 범아프리카주의는 카리브해와 아메리카 출신의 아프리카계 후손들에 의해 시작된 범아프리카 역동성의 내생적 재전유일 뿐이기 때문이다.<sup>110)</sup>

오늘날 우리는 1900년 런던에서 최초의 범아프리카 회의를 조직한 트리니다드(Trinidad) 출신의 헨리 실베스터 윌리엄(Henry Sylvester William)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윌리엄 듀보이스(William Du Bois), 마커스 가비(Marcus Garvey)의 자메이카, 에드워드 블리든(Edward W. Blyden)의 카리브해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아프리카의 해방과 르네상스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마르티니크 출신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엄청난 해체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작품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아프리카의 해방과 르네상스

---

23/05/2023.

109) Robert Dussey, “Réinventer la relation entre l’ Afrique et ses diasporas de la France d’outre-mer dans le contexte du renouveau du panafricanisme”, Cérémonie du Centenaire, 26 mai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gTS8XNasuQw> (검색일: 2024년 2월 23일).  
110) *Ibid.*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아프리카와 다른 곳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흑인 정체성 회복 운동인 네그리튀드의 틀 안에서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의 지적 헌신보다 더 범아프리카주의적인 것이 있을까?<sup>111)</sup> 에메 세제르 자신은 “네그리튀드 운동은 디아스포라 흑인과 아프리카 세계의 연대를 확증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sup>112)</sup> 결국, 범아프리카주의가 부활하는 현 상황에서 아프리카와 프랑스 해외영토 디아스포라 간의 관계를 재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새로운 관계는 교류, 협력, 상호 지원의 원칙 위에 구축될 수 있다. 양측 모두 경제 파트너십, 문화 및 예술 교류, 교육, 학술 연구, 농업, 보건 등의 분야에서의 관계의 구축을 장려해야 한다.

로베르 뒤세는 연설 말미에 토고의 주도로 2024년 로메(Lomé)에서 제9차 범아프리카 회의를 아프리카 연합(Union Africaine)과 협력하여 조직할 예정이다.

제9차 범아프리카 회의는 “범아프리카주의의 부활과 다자간 기구 개혁에서 아프리카의 역할: 자원 동원과 대응을 위한 재창조” 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는 디아스포라와 아프리카계 후손 등 대륙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들에게 국제 관할 하에 아프리카의 참여와 대표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륙 개발 과정과 국가들의 공동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성이 높은 결의안을 교환하고 채택할 수 있게 함께 모일 수 있는 특권

---

111)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 레옹 곤트란 다마스(Léon-Gontran Damas), 레오폴드 세다르 상고르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향상하고, 타 대륙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재발견하는 데 이바지한 네그리튀드의 추진력 속에서 범아프리카주의를 구현했다. 그들의 노력은 범아프리카주의의 진정한 토대인 아프리카 정체성의 회복에 이바지해 왔다. 관련해선 다음 자료들 참조하라. Christian Filostrat, “La Négritude et la ‘Conscience raciale et révolution sociale’ d’Aimé Césaire”. *Présence Francophone*, 21(Automne 1980), pp. 119-130; Jean-Paul Sartre, “Orphée Noir”, in *Anthologie de la nouvelle poésie nègre et malgach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48), pp. IX-XLIV; Leiland Rabanka, *The Negritude Movement: W.E.B. Du Bois, Leon Damas, Aimé Césaire, Léopold Senghor, Frantz Fanon, and the Evolution of an Insurgent Idea* (Lanham, Maryland: Lexington Books, 2015).

112) “Le ministre togolais Robert DUSSEY à Paris, en Sorbonne: «L’Afrique entend redynamiser les relations avec ses diasporas, notamment celles de la France d’Outre-mer»”, *Africa Presse Paris*, 20/05/2023.

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프랑스 해외영토의 아프리카계 및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들과 지구촌 다른 나라에서 온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들이 로메에서 열리는 제9차 범아프리카 회의 미사를 기대하고 있다.<sup>113)</sup>

크리스토프 케리로의 100주년 폐회사의 경우, 해외영토학술원 100년의 역사와 이후 학술원의 미래를 전망하는 연설이었다. “두 번째 세기의 여명에 학술원은 새로운 지평을 향해 단호하게 나아갈 계획이다. 즉,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학문적으로 기여하고 미래 세계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행위자들과 지식을 통해 세계와의 관계 속에 프랑스를 헌신하고자 한다”<sup>114)</sup>.

해외영토학술원 100년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구식민지 출신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그동안 학술원 운영과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전 프랑스 해외영토 출신 인사들, 특히 아프리카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프랑스와 보다 긴밀한 연대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때론 충돌했지만 때론 조화를 이루었던 기억 속에 뿌리를 둔 프랑스와 해외영토와의 연결고리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교류와 협력, 공동 이익 증진을 통해 새롭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 VII. 맺음말

프랑스 관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된 관계의 밀도에 따라 ‘해외영토’를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정의된 첫 번째 범주에는 해외영토 도(道, Département), 지역(Région) 및 집합체(Collectivité)가 포함된다. 유럽 우주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가이아나는 물론 앤틸리스 제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 프랑스 영역은 1,1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게 된다. 이곳은 프랑스 공화국의 ‘전초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띠는 곳이다.

---

113) Dussey, “Réinventer la relation entre l’ Afrique et ses diasporas de la France d’outre-mer” .

114) Christophe Kerrero, “Clôture”, Cérémonie du Centenaire, 26 mai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kBA\\_wcQfUqg](https://www.youtube.com/watch?v=kBA_wcQfUqg) (검색일: 2024년 2월 26일).

두 번째 범주는 독립 이후 프랑스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현재는 3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라 프랑코포니의 주요 세력이 된 이전 식민지로 구성된다. 해외영토학술원은 프랑스어와 그 지역적 변화, 그리고 그들이 전달하는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구축된 이 집단에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세 번째 범주는 ‘남반구’ 전체로 확대되며, 오늘날 전 지구적이라고 설명된다.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이주, 세계의 디지털화, 지속 가능한 개발 등 공통의 과제는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국경과 장벽을 초월한다.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해외영토학술원은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해외영토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해외영토학술원의 지속적인 임무 중 가장 핵심적이다. 100년 전, 해외영토학술원이 “지적 실험실이자 아이디어 연구소”가 되기를 원했던 가브리엘 아노토의 말처럼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해외영토학술원은 바다 너머에 있는 프랑스와 관계하는 나라들에 대한 다양한 현실, 문제 및 과제를 연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것이 이 단체의 존재 이유이다. “지식에 대한 탐구는 그의 성배(聖杯)” 115)이다. 식민지학술원의 학문적 목적은 식민지 자원의 활용과 개발이었다. 해외영토학술원의 목표는 “회원들의 지식 자본과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남반구의 파트너와의 협력적 접근 방식으로 미래의 세계의 주요 과제에 직면하는 것” 116)이다.

우리는 각 개인의 상호 관계, 남성/여성 관계, 아프리카/프랑스 관계, 전 지구적 북/남 관계, 남/남 관계, 인간/자연 관계에 대한 재검토와 재창조의 맥락에 놓여있다. 주어진 생태학적 도전과 아프리카와 유럽 및 미국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관계 재구성 운동을 외면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시대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라고 『폭풍 속에서(*Sous l'orage*)』의 저자인 말리의 저술가 세이두 바디안(Seydou Badian)은 말하지 않았던가?

해외영토학술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논의된 다섯 개 부문에 걸친 주제별

---

115) Roland Pourtier, “Allocution” .

116) *Ibid.*

식민지 학술단체 ‘해외영토학술원(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100년의 역사

다양성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배가시키고, 호기심을 증폭시키며,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측면이 있다. 분명 해외영토학술원은 매우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다학제적 성격으로 구별된다. 하지만 학문 간의 마찰, 다시 말해 특정 주제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나 관점의 충돌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충돌은 현재 해외영토학술원 원장인 톨랑 푸르티에가 언급했듯이 “발견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강화한다” 라고 이해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진정한 평등과 우애의 토대 위에 과거의 제국과 해외영토가 연대하고 관계할 때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ljwdavid@yonsei.ac.kr

주제어(Key Words)

해외영토학술원(Academy of Overseas Territory Sciences), 100주년 기념(100th anniversary),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y), 1차 대전 100주년(100th anniversary of World War I), 프랑스 식민 제국(French Colonial Empire).

투고일: 2024.4.25. 심사일: 2024.5.15. 게재확정일: 2024.5.19.

<국문 초록>

식민지 학술단체 ‘해외영토학술원(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100년의 역사

이재원

식민지학술원(Académie des sciences coloniales)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해외영토학술원(Académie des sciences d’outre-me)은 1922년에 창설된 식민지 학술단체로 주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지리 및 역사 일반에 관해 연구하는 기관이다. 제국주의 시대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탄생한 해외영토학술원은 식민지 압력단체(parti colonial) 혹은 식민지 선전단체로 자연스럽게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창립 이후 100년이 지난 2023년 5월 26일, 소르본 대학 대강당에서 해외영토학술원은 전현직 국가 원수를 포함한 정치 지도자, 지식인과 연구자, 경제 지도자, 예술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석한 모임을 통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했다. 이 행사를 통해 환경, 인구,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및 사회 문제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고위 연사들의 다양한 관점과 전문 지식을 비교할 수 있었다.

오늘날 해외영토학술원은 파리에서 영향력 있는 가장 신중한 학자들로 구성된 지식인 모임 중 하나이다. 외교관, 연구원, 언론인 및 정치인은 이용 가능한 몇 안 되는 좌석 중 하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식민지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이 지식인 학회는 여전히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학술단체로 시작한 해외영토학술원이 공식적인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또한 창립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식민지 문제를 언급하는 주요 학술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는 이유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학술원의 역사와 인물, 다양한 활동과 학술대회를 통해 드러난 연구와 관심 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과거 식민주의 유산이 어떻게 계승되고 변용되며, 극복되었는지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Abstract>

**100 years of history of the colonial academic organization  
'Académie des Sciences d'Outre-Mer'**

Lee, Jaewon

The Academy of Overseas Territory Sciences, which started under the name of the Academy of Colonial Sciences, is a colonial academic organization founded in 1922 that mainly focuses on the general geography and history of Africa, Latin America, Asia, and Oceania. It is an institution that researches. This Academy, which was born in the context of the imperial era, can be naturally defined as a colonial pressure organization or a colonial propaganda organization. On May 26, 2023, 100 years after its founding, the Academy of Overseas Territory Sciences celebrated its 100th anniversary at the Sorbonne University auditorium through a meeting attended by political leaders, intellectuals and researchers, economic leaders, artists, and civil society activists, including former and current heads of state.

Today, the Academy of Overseas Territory Sciences is one of the most thoughtful intellectuals who are influential in Paris. Diplomats, researchers, journalists and politicians want to take part in one of the few seats available. This intellectual society specializing in colonial issues is still showing off its influence. This paper intends to pay attention to why the Overseas Territorial Academy, which started as an imperialist colonial academic organization, can still be a major academic institution that mentions colonial issues more than 60 years after the official imperial era ended, and 100 years after its foundation. We aim to reflect on how the legacy of past colonialism was inherited, transformed, and overcome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academy's history and people, and the research and areas of interest revealed through various activities and academic conferences.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Amat-Roze, Jeanne-Marie et Benoit, (dir.), *L'empire colonial français dans la grande guerre: un siècle d'histoire et de mémoire* (Paris: Dacres -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2020).
- Barjot, Dominique et Klein, Jean-François (dir.), *De L'Indochine coloniale au Viêt Nam actuel* (Premiers entretiens d' outre-mer présentés par Pierre Géný), (Paris: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2017).
- Beaujard, Philippe, *Traditions historiques du sud-est de Madagascar* (Paris: Geuthner -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2019).
- Bertrand-Cadi, Jean-Yves, *L'Algérie des sociétés savantes: leur contribution et leur héritage(1830-1962)* (Paris: Geuthner, 2022).
- Bodard, Mag, *L'Indochine, c' est aussi comme ça* (Paris: Gallimard L'air Du Temps 1954).
- Bonnetain, Raymonde, *Une Française au Soudan. Sur la route de Tombouctou, du Sénégal au Niger* (Paris: Librairies-Imprimeries réunies, 1894; Éditions l'Harmattan, 2007).
- Bourdari, Paul, *La Grande guerre considérée au point de vue colonial. La Lutte des impérialismes coloniaux* (Publié par la Revue des questions coloniales et maritimes et la Revue indigène. 1916)(Thouars: Impr. nouvelle, 1916)
- \_\_\_\_\_, *L'Exploitation du domaine colonial. Un projet de collaboration étrangère* (Thouars, Paris: Impr. nouvelle / Bibliothèque de la "Revue des questions coloniales et maritimes" , 1922).
- Diallo, Safiatou, *Politiques de santé en Guinée: de la colonisation au début du XXIe siècle* (Paris: L' Harmattan, Coll. Études africaines, 2021).
- Dorgelès, Roland, *Sur la route mandarine* (Paris: Albin Michel, 1925).
- Fontaine, Hugues, *Ménélik : une Abyssinie des photographes 1868-1916* (Nanterre: Amarna, 2020).



식민지 학술단체 ‘해외영토학술원(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100년의 역사

- Leuba, Jeanne, *La Tristesse du soleil* (Pais: Plon-Nourrit et Cie, 1913).
- Morin, Paul Max, *Les jeunes et la guerre d’Algérie: une nouvelle génération face à son histoir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Humensis, 2022).
- Pourtier, Roland, *Congo, un fleuve à la puissance contrariée* (Paris: CNRS Éditions, 2021).
- Scheele, Isabell, *Les relations transimpériales : l’exemple du Togo allemand et du Dahomey français à l’apogée de l’impérialisme européen* (Berlin: Peter Lang, 2021).
- Sellam, Sadek, (textes compilés par), *Anticolonialisme en Franc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Paris: Héritage, 2022).
- Viollis, Andrée, *Indochine S.O.S* (préf. André Malraux) (Paris: Gallimard, 1935)
- Zytnicki, Colette, *La conquête: comment les Français ont pris possession de l’Algérie, 1830-1848* (Paris: Tallandier, 2022).

## 2. 논문

- Bretin, Marie-Laure, “Un fonds économique à la Bibliothèque Félix Houphouët-Boigny de l’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 , *Revue française d’histoire économique*, 15(2021), pp. 190-195.
- Cohen, William B., “Maurice Delafosse, le Berrichon Conquis par l’Afrique by Louise Delafosse (Paris: Société Française d’Histoire d’Outre-Mer, 1978)” .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n Historical Studies*, 11-2(1978), pp. 302-305.
- Faure, Jean-Pierre, “Les membres fondateurs de l’ Académie des Sciences d’ Outre-mer et la Grande Guerre” , *Revue Défense Nationale*, 816(2019), pp. 61-66.
- Klein, Jean-François, “In Memoriam Pierre-Lucien Lamant (1926-2007)” , *Mousson*. Nos. 13-14(2009), pp. 373-380.

## 3. 인터넷 자료

[www.academieoutremer.fr](http://www.academieoutremer.fr) (검색일: 2024년 1월 3일).

<https://www.academieoutremer.fr/100-asom/> (검색일: 2024년 1월 10일).

<https://www.academieoutremer.fr/le-centenaire-de-la-grande-guerre-et-lacademie/>(검색일: 2024년 1월 28일).

[https://odyssee.univ-amu.fr/files/original/2/620/BUT-Yp-50707\\_Academie-sc-coloniales\\_1922-1923\\_T01.pdf](https://odyssee.univ-amu.fr/files/original/2/620/BUT-Yp-50707_Academie-sc-coloniales_1922-1923_T01.pdf). (검색일: 2024년 1월 20일).

<https://odyssee.univ-amu.fr/items/show/620#?c=0&m=0&s=0&cv=0> (검색일: 2024년 1월 10일).